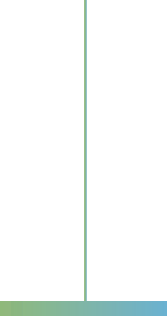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계활성화 방안

인천문화재단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계활성화 방안

이 현 식

2020. 12



목차

I. 서론 4

1. 문제제기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현재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수행의 문제점

2. 연구의 대상 및 내용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내용과 한계

II.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9년 8

- ☐ 인천 공연예술연습공간 희곡낭독 프로그램 사업 결과
- ☐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시민대상 아카데미 결과
- ☐ 자료)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참가자 설문조사결과
- ☐ 인천 역사시민대학 사업 결과
- ☐ 인천 트라이보울 교육사업 결과
- ☐ 한국근대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 ☐ 우리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III. 유사 기관 사례 조사 55

1. 사례조사 개요

2. 사례 대상지 세부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IV.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75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2) 참여경험

3) 통합운영

4) 개선방안

5) 수강수요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V. 교육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 94

1. 부서간 협력시스템의 구축

2.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연계 활성화 전략

3. 향후 과제

I. 서론

1.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 이후 인천의 예술가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기획사업, 예술강사 운영 등 중앙정부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 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등 인천광역시와 함께 하는 사업, 인천트라이보울, 인천아트 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운영 등 다양한 시설 운영 사업을 수행해 왔음.

창립 이래 16년이 지난 인천문화재단은 여러 사업 가운데에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여러 부서에서 다채롭게 운영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음.

2019년 한 해의 사례만 보아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근대문학관,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 트라이보울, 인천공연예술연습장, 인천 동구 우리미술관 등의 부서에서 각양각색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한 바가 있음.

그러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지니고 있음. 문제점은 프로그램 자체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

2) 현재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수행의 문제점

○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부재

현재 평균 약 5~6개 부서에서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부서에서 각각의 자율성을 갖고 진행하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프로그램이 중복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여지도 많음.

즉, 개별 단위 부서에서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것일지라도 인천문화재단 전체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심있는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임.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관된 체계도 현재는 없는 상태임. 부서별 자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예컨대 대상, 장소, 시간, 수강 방식 등도 제각각이고 참여자에 대한 관리,

만족도 조사, 환류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인천의 문화를 발전시킬 인천문화재단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어렵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도 성과는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홍보 효과 반감 및 인지도 저하

부서별 각기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부서 단위 안에서만 진행되므로 홍보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빚어오고 있음. 아울러 홍보의 주요 초점이 분산됨으로써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또한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부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분산되어 인지된다는 문제가 있음.

개별 프로그램으로 홍보되다 보니 그 효과가 배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 즉, 이는 홍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분산되어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알리는 효과도,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인 인천문화재단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

즉, 인천문화재단의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인천문화재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므로 시민들에게 인천문화재단과 무관하게 여러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프로그램의 경험이 시민의 입장에서나 인천문화재단의 입장에서나 축적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휘발된다는 문제를 불러오게 되고 교육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과와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용자 편의성 저하

프로그램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 편의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 목적 측면이나 기관의 역할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인데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제각각 파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다양성이 아니라 혼란함을 가중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보 자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임.

제공하는 입장의 담당자조차 자기 프로그램만 알 수 있을 뿐 재단 내 다른 부서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 수 없는데 제공받는 시민은 특정 부서의 프로그램은 운이 좋게 전달 받을 수 있어도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전체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부재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런 현상에 착안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기적인 제도적 실천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임.

2.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 본 연구보고서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시민 대상의 독립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임. 인천문화재단이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제외하며 특정 프로그램에 부속된 하위프로그램이나 일부 체험프로그램은 제외함.
- 인천문화재단이 집행 책임을 갖고 기획에서 실행까지 전체적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대규모 행사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일부 교육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 또한 제외함. 즉 축제 행사나 기타 기획 사업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있기는 하나 특별한 독립성이 없는 것은 제외함.
- 아울러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가자가 특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한 제외함. 예컨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나 큐레이터 양성프로그램,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혹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여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단 이 경우에도 일반 시민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포함될 수 있음.

2) 연구의 내용과 한계

- 본 연구는 재단 내부 목적에 따라 자체 수행 과제로 연구된 것이어서 본격적인 정책 연구 보고서로 작성된 것은 아님. 따라서 충분한 조사와 면담, 인터뷰, 자문 및 내부 회의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전문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계획 설계에 의거하여 수행된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함.
-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설문조사, 사례 조사, 내부 현황 및 관계자 회의를 거쳐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에 대해 설문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재단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담당자 회의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서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음.
- 본 연구는 2019년 수행된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 검토, 2020년 8월에 제출된 인천문화재단 2021년사업계획 중 교육 관련 내용 검토, 2020년 10월에 진행된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설문조사, 사례조사를 토대로 진행되었음.
-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되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향에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음. 즉, 부서별로 진행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그를 위해 어떤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

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음.

-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이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체계적인 토론과 연구가 필요함. 이번 보고서는 단기적 정책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을 재차 밝히는 바임.

II.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9년

- 이하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시행한 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를 편집하여 현황자료로 제시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시민 대상의 독립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으나 전체가 이 기준에 모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트라이보울이나 동구 우리미술관은 부서 특성상, 혹은 사업 예산의 특성상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닌 경우도 일부 섞여 있음.
- 기준연도는 2019년으로 하였으며 이는 연구 시행 기준 연도에서 사업 결과가 일단락된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객관적이기 때문임. 아울러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는 사정을 감안하였음.
- 2019년 기준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한 시설 및 부서는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 한국근대문학관, 트라이보울, 동구 우리미술관임. 특히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인천시민문화대학‘하늬바람’으로, 인천문화유산센터는 ‘인천역사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근대문학관은 ‘문학(인문학)이 있는 저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음.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참가자 설문조사는 상대적용 대규모로 시행된 것이어서 자료적 가치가 크므로 별도로 소개하였음. 다른 부서는 결과평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였음.
-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집행하는 부서와 시설은 해마다 다소 변동이 있으며 특히 인천아트플랫폼은 2020년 이후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진행시키는 사업을 준비중이나 기준 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음. 다른 한편 공연예술연습공간은 2020년부터 공간이 전문예술인을 위한 곳임을 감안하여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결과보고를 적정하게 편집하여 소개하는 것이므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편집 양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천 공연예술연습공간 희곡낭독 프로그램 사업 결과

□ 사업개요

1. 사업 명 : 2019 희곡낭독 프로그램 <화요낭독회>
2. 사업기간 : 2019.8.8. ~ 2019.11.23. / 총 16주
3. 사업장소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내
4. 예 산 액 : 금9,000,000원

□ 사업목적

1. 공연예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2.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의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성 제고
3. 주요 연속 기획 사업으로서 인근지역 시민들의 높은 수요도 충족

□ 사업내용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희곡낭독 프로그램 <화요낭독회>
- 진행일자 : 2019. 8. 8. ~ 11.23. (총 16회)
 - Part 1. : 2019.08.08.~ 08.27. / 매주 화 or 목, 저녁 7~9시(4차시)
 - Part 2. : 2019.09.02.~ 11.23. / 매주 화, 저녁 7~9시(12차시)
- : 마지막 주 토요일 결과발표 낭독공연 진행
- 진행내용 : 낭독회 15회, 최종 낭독공연 1회, 부대행사 1회

2. 강사이력

구분	성 명	활동 이력
Part1.	강 량 원	· 現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 · 現 '극단 동' 연출 및 단원 ·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Part2.	이 주 희	· 現 창작집단 LAS 배우

3. 진행 및 사업결과

- Part 1. : 말하다, 행동하다, 체험하다
 - 8월 1개월 4회 진행(주 1회, 2시간/회)
 - 프로그램 수혜자 수 120명
- Part 2. 살롱 더 플레이
 - 9월~11월 3개월 12회 진행(주 1회, 2시간/회)
 - 프로그램 수혜자 수 180명
- 최종 결과발표회 「살롱 더 플레이」(B동 대연습실)
 - 최종 결과발표 낭독공연 진행 1회(2019.11.23.)
 - 공연관람객 50명(공연 예약자 63명중 50명 참석)
 - 공연관람객 대상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 4.75점/5점(28명 설문)
- 부대 행사(A동 다목적실)
 - 16주의 프로그램 현장스케치를 담은 ‘작은 사진전’ 개최
 - 공연 후 합평회 및 수료식, 사진전 관람 동시 진행
- 수료식
 - 세부 프로그램에 맞는 기준에 따라 수료증 수여
 - Part1. 프로그램은 진행 차시가 적어 100% 출석 시에만 수료증 수여

세부 프로그램 명분		수료자	기 준	비 고
Part1	말, 행, 체	30명 중 10인	4회 프로그램의 100% 출석	-
Part2.	살롱 더 플레이	15인 중 15인	13회 프로그램의 90% 출석	수강생 100% 수료
합		25인		

□ 자체평가

1. 사업성과

-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극’분야의 예술체험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전문공연예술인을 비롯하여 신진예술인 및 시민배우, 관련학과 재학생 등 다양한 수혜계층이 참여함
-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경기권의 공연예술인 및 시민들이 참여 함. 이에 참여자 간의 창작활동 공유 및 지역 예술인 네트워킹의 자리가 마련됨

- 지난 2016~2018 낭독회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중, 최종 낭독공연의 부담감 해소, 총 교육기간 확대 요구, 다양한 커리큘럼에 대한 요구 등에 따라 Part1, Part2를 나누어서 개설함
- 인천시립극단 강량원 예술감독을 초청하여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강연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였음
- '창작집단 LAS(라스)'와 2년 연속 협력하여 강연 및 낭독공연 연출을 진행했으며 창작 예술가의 범 시민대상 교육 역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함 (이기쁨 연출가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파트너 선정)
- 리딩룸의 공실률이 높은 평일 야간(18~22시) 시간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사업기간 내에 공실률 개선 및 공간 활용도 향상에 기여함
- 희곡 낭독으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연극놀이·상황극 만들기·대본 및 캐릭터 분석 등의 연극적 도구를 가미하여 전개하고, 다수의 참여자를 무대에 모두 올리기 위해 5개의 작품을 유니버스 형태로 구성하여 완성함

2. 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 4.83점/5점
 -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Part1. 프로그램은 시민대상 강연 프로그램이었으나 진행 강사의 전문성이 높아 전체적인 강연 수준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음
 - Part2. 프로그램에 비하여 Part1. 프로그램 진행기간(4주)이 짧아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음
 - 추후에도 같은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많았음
-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4.75점/5점
 - 2016~2018년도에는 관객 대부분이 프로그램 참여자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금년 낭독공연에는 일반 관객도 다수 포함됨
 - 추후 연습공간 기획행사 참여의사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 제출

□ 홍보내역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 지방지 3건, 인터넷 신문 2건
- SNS(카카오톡·APP), DM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시민대상 아카데미 결과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¹⁾ 시민대상 아카데미
- 사업기간 : 2019. 01 ~ 2019. 12
- 교육기간 : 2019. 03 ~ 2019. 12
- 교육대상 : 인천시민
- 사업예산 : 금95,850,000원

II.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 등에 발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시민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플랫폼의 필요성 대두
- 개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더해주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

○ 추진방향

-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강좌 마련
- 인천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협력 진행
- 일회성, 단기적 강좌 운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1) ※ 하늬바람 : 농부나 뱃사람들이 ‘서풍’을 부르는 말, ‘하늬’는 뱃사람의 말로 서쪽이다. 따라서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말한다. 습하고 무더운 ‘된마(동남풍)’에 상대되는 바람이다. 무더운 여름철에 부는 하늬바람은 말의 느낌만큼이나 실제로도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이다. -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

‘쉽 없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천시민문화대학이 하늬바람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Ⅲ. 추진내용

○ 문화예술특강 및 상반기(4월~7월)/하반기(9월~11월) 상설강좌 운영, 총 시수

명 칭	내 용	강좌 수	운영시수	참여강사	추진방식
문화예술특강	명사초청 프로그램	3개	8시수	5명	직접 운영
일상예술 프로그램	예술입문 · 창작과정	8개	107시수	9명	직접 운영
지역연계 프로그램	인천 지역의 다양한 문화 공간, 단체,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획·운영하는 강좌	17개	243시수	57명	지역 단체 /기관 협력운영
인문사회 아카데미	철학과 예술, 사회분야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이론 강좌	6개	62시수	9명	직접 운영
인천 문화도시 세미나	인천문화정책의 이슈를 토론하는 현장 중심의 소규모 학습 세미나	2개	22시수	6명	직접 또는 협력 운영
총 계		36개	442시수	84명	

○ 강좌별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명)

구분	연번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횟수	신청	참여	연인원
총 계					189강	1,415	1,155	3,181
특강	1	새로운 100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3.14.	트라이보울	1강	154명	112명	112명
	2	슈퍼히어로의 역사 문화사	8.22	트라이보울	1강	107명	59명	59명
	3	한국영화 100년, 인생영화를 말하다	12.12	트라이보울	1강	189명	115명	115명
일상 예술 프로그램	4	나뭇잎 일기	4.4~4.25	인천생활 문화센터	4강	20명	11명	32명
	5	시 쓰기	4.4~5.9	인천생활 문화센터	6강	27명	18명	67명
	6	작곡 밥 한입	5.14~6.18	인천생활 문화센터	6강	16명	11명	41명
	7	야근 대신 바느질	5.16~6.27	인천생활 문화센터	6강	29명	12명	51명
	8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 글쓰기와 책읽기	9.16~10.21	인천생활 문화센터	6강	28명	18명	49명
	9	박형의 블루스 하모니카 교실	9.17~10.15	인천생활 문화센터	5강	13명	12명	45명

구분	연번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횟수	신청	참여	연인원
일상 예술 프로 그램	10	기분의 모양	9.19-10.31.	인천생활문화센터	6강	17명	14명	51명
	11	춤, 해시태그로 쓰는 몸의 하루	10.7-11.18	인천생활문화센터	6강	26명	15명	56명
지역 연계 프로 그램	12	사진미학개론	4.3-5.22	인천생활문화센터	8강	38명	29명	158명
	13	여백을 채우는 시간, 음악	4.3-4.24	인천여관x루비살롱	4강	24명	14명	43명
	14	다른 생태, 다른 상상	4.5-5.24	임시공간	8강	29명	24명	103명
	15	과학철학 그리고 미셀 푸코	4.3-6.5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8강	88명	173명	552명
	16	시대와 불화한 여자들	4.12-7.12	신나는여성주의 도서관랄라	4강	35명	37명	70명
	17	다생다여: 60일간의 세계 일주	5.2-6.27	여행인문학도서관 길 위의 꿈	8강	100명	91명	376명
	18	나무판에 새겨진 나의 무늬	5.7-6.25	문화예술창작 공간 도르리	8강	32명	11명	59명
	19	재즈 보컬의 세계	5.15-6.5	버텨라인	4강	40명	31명	88명
	20	디아스포라의 이슈들	9.17-10.22	인천생활문화센터	6강	19명	23명	68명
	21	동인천의 다양한 건물들	9.20-10.25	아카이브카페 빙고	6강	41명	17명	73명
	22	아무도 해치지 않는 식사, 비거니즘	9.27-11.8	책방 모도	4강	26명	20명	46명
	23	인류세(anthropocene)에 사과나무 심기	10.15-11.19	한국근대문학관	6강	16명	24명	47명
	24	내 몸, control C+control V	10.16-11.20	인천여관x루비살롱	6강	14명	10명	47명
	25	왜 우리는 공정사회를 원하는가?	10.17-11.7	제물포 스마트타운	4강	18명	32명	71명
	26	한국대중음악연대기	10.23-11.13	브라운사운드	4강	16명	13명	37명
	27	현대사회와 공연예술축제	10.24-11.28	인천생활문화센터	6강	23명	21명	47명
	28	제2회 가좌 인문학 축제 연계 특강	10.6-10.27	서구도서관	8강	27명	31명	77명
인문 사회 아카 데미	29	마음이란 무엇인가?	4.2-5.7	인천생활문화센터	6강	32명	25명	99명
	30	고통의 결, 결의 고통	5.2-5.23	인천생활문화센터	4강	30명	21명	69명
	31	신영복 함께 읽기	5.14-6.18	한국근대문학관	6강	29명	19명	68명

구분	연번		기간	장소	횟수	신청	참여	연인원
인문 사회 아카 데미	32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 간과 함께 흐른다	9.17-10.8	한국근대문 학관	4강	24명	13명	35명
	33	청(소)년 문화를 통해 본 당대의 변화	10.16- 11.6	인천생활문 화센터	4강	23명	21명	74명
	34	한나 아렌트로 우리시대 읽기	10.29- 11.19	인천생활 문화센터	4강	35명	24명	35명
인천 문화 도시 세미 나	35	지역문화학 세미나	9.18- 11.27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6강	17명	22명	62명
	36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 강독	10.7.- 11.4.	인천생활 문화센터	5강	13명	12명	52명
					189	1,415	1,155	3,181

IV. 참여자 현황 및 만족도

○ 참여자 현황

- 하늬바람 전체 참여인원은 2018년 706명(연인원 1,902명)에서 2019년 1,155명(연인원 3,181명)으로 449명(약 64%) 증가함. 그 중 40-50대 참여자의 증가 비율이 가장 컸으며, 20대와 7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추세를 보임
- 성별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음
- 하늬바람에 참여하게 된 경로의 경우, 주변 지인의 소개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하여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SNS, 메일링/문자 서비스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하였음

○ 만족도 결과

- 강좌 전반의 만족도는 2019년도 4.59(백분율 환산 91.73점)으로 지난해 4.5(백분율 환산 90점)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됨

구분	전체	응답결과						평균	백분율 환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8년	226	1	5	8	78	134	4.50	90점	
	100%	0.4%	2.2%	3.6%	34.5%	59.3%			
2019년	389	1	1	14	125	248	4.59	91.73점	
	100%	0.3%	0.3%	3.6%	32.1%	63.8%			

V. 평가 및 발전방향

○ 참여자 평가

- 일상예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정서적 충만함을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음. 일반적인 기술 습득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면서 예술을 경험하는 방식에 만족을 표함. 강좌 및 강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에 따라 현 강좌에 대한 연계 및 심화 과정이나 현재의 강사가 운영하는 다른 주제의 강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다수의 강좌가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운영되었으므로 공간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강의의 내용과 공간의 성격이 부합하는 경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나 다른 한 편으로 공간이 너무 비좁거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러나 대체로 강좌 수강을 계기로 지역의 잘 몰랐던 문화공간을 알게 되었다는 점, 색다른 분위기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내림
- 인문사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우, 어려운 인문지식을 강사의 도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점, 강좌를 통해 현재 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인문학적 고찰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움을 보임. 그러나 강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심화된 내용에 대한 수요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내용에 대한 수요가 나뉘어 상반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참여자 공통 요청사항으로는 강좌 참석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인문사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우 참여자간 토론 시간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참여자들이 꼽은 아쉬운 점은 대체로 강좌 내용보다는 진행의 방식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룸. 교육시간이 부족해 아쉽다거나 교육 시설의 기자재 및 설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차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담당자 평가

- 신청 및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확대와 타 사업의 직접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홍보로 새롭게 진입한 참여자가 많은 편임
- 다만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이는 하반기에 집중되어있는 문화예술행사, 늘어난 강좌 수, 강의일정(같은 요일 2개 이상의 강좌가 운영되는 경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하늬바람 시민대상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주제, 공간, 내용에 대한 개방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는 것임. 특히 상/하반기 통합 홍보는 하늬바람 프로그램을 한 눈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하늬바람만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 요인으로 판단됨. 하지만 여전히 광역 문화재단 아카데미 사업으로써 차별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4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규모(강좌 수)의 확대보다는 강좌 전반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봄

○ 기타 개선사항

- 분기별 또는 프로그램 종료 시 기획자와 강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늬바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정보와 노쇼, 패널티, 설문지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향후 발전방향

- 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은 2017년 하반기~2019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업의 기반을 구축해온 만큼 4년차를 맞는 2020년부터 향후 3년간은 지난 운영 기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을 계발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시스템의 안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강좌 수나 참여자 수의 정량적 증가보다는 기존 강좌의 심화 과정 개발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다양성 구현과 참여자의 수료율 증가에 기반한 고정 참여자 확보를 향후 사업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함
- 더불어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공간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상·하반기 연속 수료자나 지인 소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벤트를 통해 기존 인원을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함

	2020년	2021년	2022년
운영 시스템 안정화	· 수료율 증가에 목적을 둔 참여자 모집 · 기관 및 단체, 공간과의 협 력 체계 보완	· 동아리 사업 등과 연계한 참여자 모집 · 지역 내 협력 단체 및 공 간 추가 발굴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중심의 프로그램 개편 · 적절한 운영인력 시스템 마련
프로그램 차별성 및 전문성 확보	· 기존 강좌 간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등 운 영	· 심화 프로그램 및 참여자 결과물을 활용한 발표형 프로그램 등 운영	· 성과 및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등 운영
홍보 및 아카이브	· 기존 참여자 데이터를 활 용한 홍보 진행	· 프로그램 영상 기록을 통 한 아카이빙 · 하늬바람 전용 온라인 플 랫폼 기반 구축	· 하늬바람 전용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한 홍보 및 아카 이브

VI. 언론보도 현황

No.	보도처	보도자료명	보도일
1	뉴스페이퍼	인천문화재단,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3월 봄 특강 개최	2019.03.04
2	인천in	문화재단 하늬바람, 올해 오연호 특강으로 첫 시작	2019.03.04
3	인천 i-View	오연호 오마이뉴스, 3월 14일 대표 특강	2019.03.04
4	기호일보	덴마크에서 배운 '행복한 인생 보내는 비법' 공유	2019.03.06
5	인천일보	인천문화재단 '하늬바람' 타고 행복사회로	2019.03.06
6	인천일보	지친 인생 '하늬바람' 쉼볼까... 인천시민문화대학 수강신청 받아	2019.03.20
7	경인일보	인천시민문화대학 열린플랫폼 '하늬바람' 15개 분야 200개 강좌 4월부터 무료진행	2019.03.21
8	브릿지경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대, 경인교대, 인천문화재단 등 협력사업 확대	2019.03.29
9	인천in	인문학 강좌 <과학철학 그리고 미셸 푸코> 인하대에서 열려	2019.04.02

No.	보도처	보도자료명	보도일
10	인천 i-View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반기 강좌 열려	2019.09.02
11	인천일보	인천문화재단, 공정사회 정착교육 진행	2019.10.17
12	아주경제	인천문화재단, 겨울특강 〈한국영화 100년, 인생영화를 말하다!〉 개최	2019.11.28
13	기호일보	인천문화재단, ‘한국영화 100년, 인생영화를 말하다!’ 특강 참가자 모집	2019.11.29
14	인천일보	12일 송도서 특강 ‘한국영화 100년, 인생영화를 말하다’	2019.12.06
15	인천 i-View	한국영화 100년, 인생영화를 말하다!	2019.12.12

Ⅶ. 사업결과물

자료명	활용처	수량
3월 문화예술특강 포스터	사업홍보, 행사진행시 배포	30
8월 문화예술특강 포스터	사업홍보, 행사진행시 배포	30
12월 문화예술특강 포스터	사업홍보, 행사진행시 배포	30
상반기 프로그램 홍보책자	사업홍보, 행사진행시 배포	700
하반기 프로그램 홍보책자	사업홍보, 행사진행시 배포	600

자료)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참가자 설문조사결과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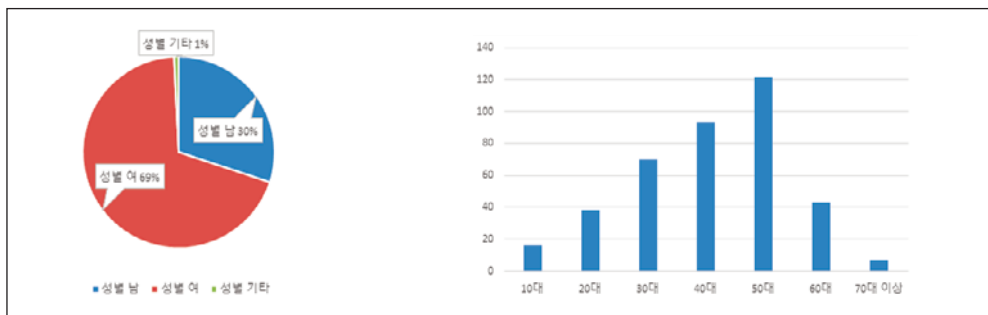
- 조사대상 : 2019년도 상/하반기 상설강좌 참여자
- 조사기간 : 2019년 4월 24일 ~ 11월 28일
- 조사방법 :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 유효표본 : 389개 (상설강좌 전체 참여자의 44.8%)
- 문항구성 : 5점 리커트 방식
- 조사내용

구 분	조사항목
참여 동기	참여계기, 정보탐색경로
만족도 관련	강의 전반의 만족도(상/하반기) 교육내용의 만족도, 교육강사의 만족도, 교육환경의 만족도(하반기)
향후 기대방향	수강 강좌 추천 및 재수강 의향, 향후 하늬바람 참여 의향 등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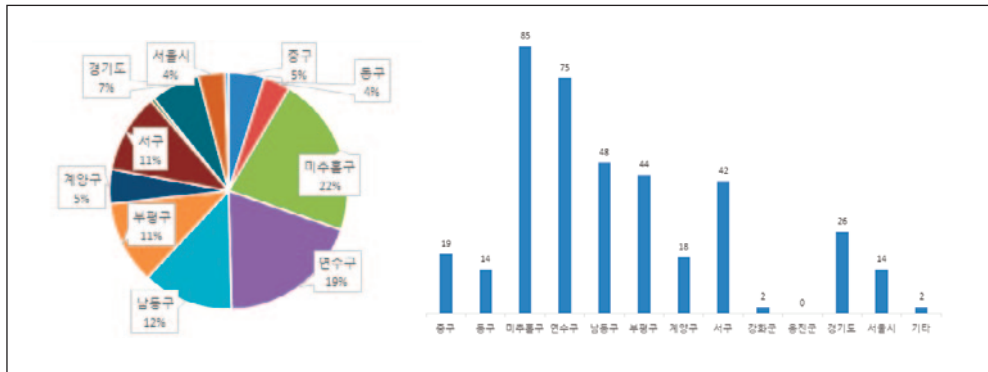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 참여자 성별 및 연령
 - 2019년도 하늬바람 주요 참여자 연령은 50대 31%(122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4%(93명), 30대 18%(70명) 순으로 조사됨
 - 참여자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 참여자가 69%(269명)로 남성 참여자 30%(117명)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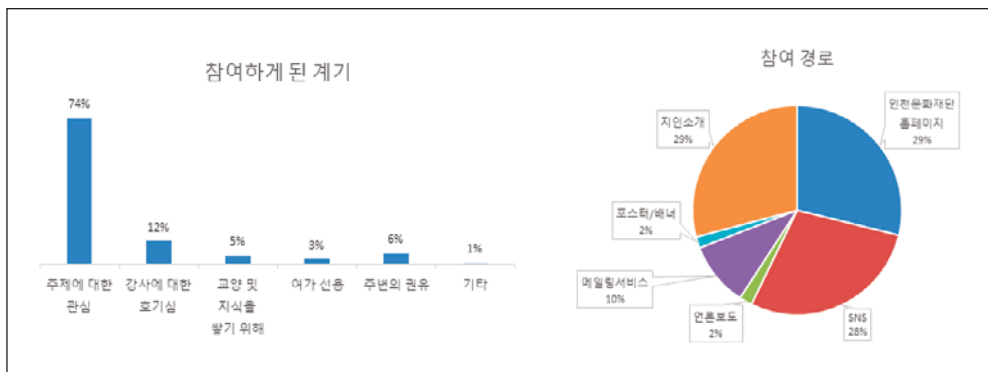
○ 참여자 거주 지역

- 주요 참여자 거주 지역으로는 미추홀구 22%(85명)와 연수구 19%(7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남동구 12%(48명), 부평구 11%(44명), 서구 11%(42명) 순으로 나타남



○ 참여 동기

- 하늬바람 강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기타 강사에 대한 호기심 12%, 주변의 권유 6%, 교양 및 지식을 쌓기 위해 5% 등으로 조사됨
- 하늬바람 교육과정을 알게 된 세부경로를 살펴보면,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가 29%, 지인 소개 29%, SNS(페이스북 등) 28%로 세 개의 경로가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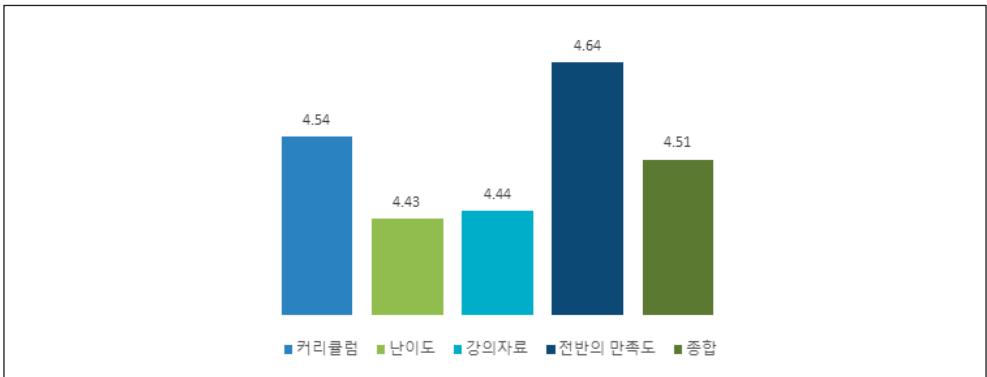


2) 교육 만족도 ※ 하반기 17개 상설강좌만 진행

○ 교육내용

-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커리큘럼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가 4.54점, 강의 자료의 준비 및 활용이 적절하였다 4.44점, 교육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하다 4.4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4.51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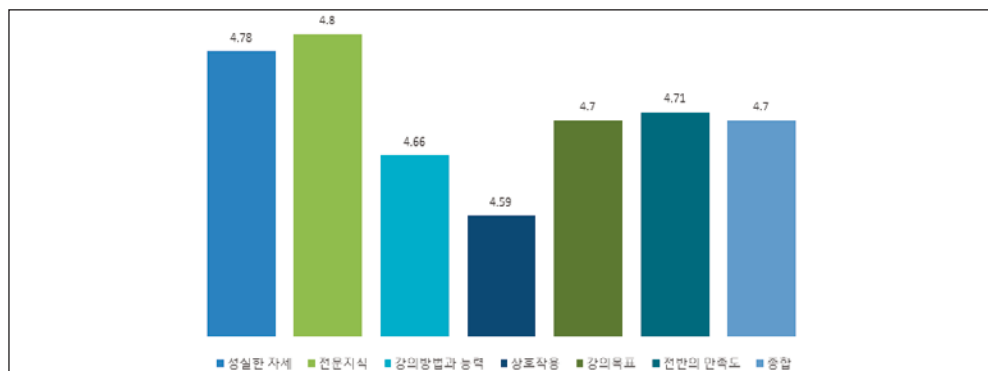
항 목	전체	응답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커리큘럼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171	0	0	7	65	99	4.54
	100%	0%	0%	4.1%	38%	57.9%	
교육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하다	171	0	3	9	70	89	4.43
	100%	0%	1.8%	5.3%	40.9%	52%	
강의 자료의 준비 및 활용이 적절하였다	171	1	2	12	62	94	4.44
	100%	0.6%	1.2%	7%	36.3%	55%	
교육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71	0	0	5	52	114	4.64
	100%	0%	0%	2.9%	30.4%	66.7%	
총 합	4.51						



○ 교육 강사 ※ 강사 없이 진행되었던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 강독> 제외

- 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강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4.8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육 강사는 성실한 자세로 강의하였다 4.78점, 교육강사는 강의목표와 일치된 수업을 진행하였다 4.70점, 교육 강사는 강의방법과 강의능력이 뛰어나다 4.66점, 교육 강사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다 4.59점 순으로 조사됨. 전반적 만족도는 4.70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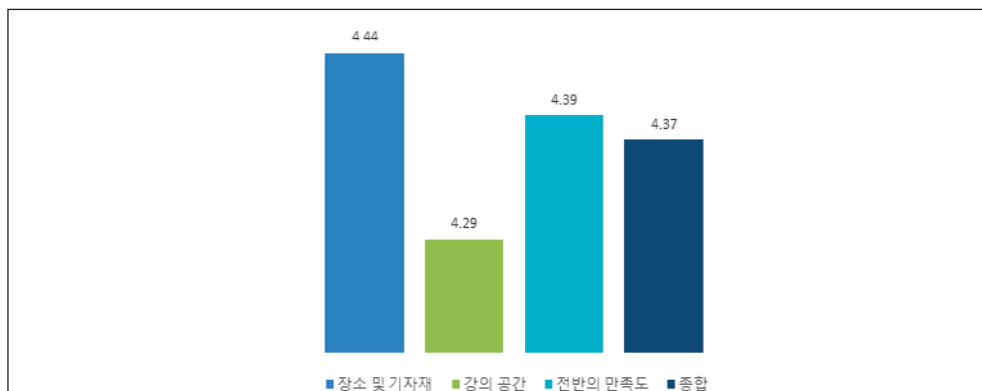
항 목	전체	응답결과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 강사는 성실한 자세로 강의하였다	160	1	0	0	32	127	4.78
	100%	0.6%	0%	0%	20%	79.4%	
교육 강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160	1	0	1	26	132	4.80
	100%	0.6%	0%	0.6%	16.3%	82.5%	
교육 강사는 강의방법과 강의능력이 뛰어나다	160	1	0	3	45	111	4.66
	100%	0.6%	0%	1.9%	28.1%	69.4%	
교육 강사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다	160	1	0	9	44	106	4.59
	100%	0.6%	0%	5.6%	27.5%	66.3%	
교육 강사는 강의목표와 일치된 수업을 진행하였다	160	1	0	3	38	118	4.70
	100%	0.6%	0%	1.9%	23.8%	73.8%	
교육 강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60	1	0	2	39	118	4.71
	100%	0.6%	0%	1.3%	24.4%	73.8%	
총 합	4.70						



○ 교육환경

-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강의 장소 및 기자재가 수업내용에 맞게 준비되었다가 4.44점, 강의 공간에 만족한다가 4.29점이었으며, 교육환경 전반의 만족도는 4.37점으로 조사됨

항목	전체	응답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강의 장소 및 기자재는 수업내용에 맞게 준비되었다	171	1	4	9	61	96	4.44
	100%	0.6%	2.3%	5.3%	35.7%	56.1%	
강의 공간에 만족한다	171	2	5	22	54	88	4.29
	100%	1.2%	2.9%	12.9%	31.6%	51.5%	
교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71	1	4	13	63	90	4.39
	100%	0.6%	2.3%	7.6%	36.8%	52.6%	
종합	4.37						



3)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019 하늬바람 강의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59점(백분율 91.73)으로 나타남

※ 참고) 상/하반기 상설강좌 강좌별 만족도 및 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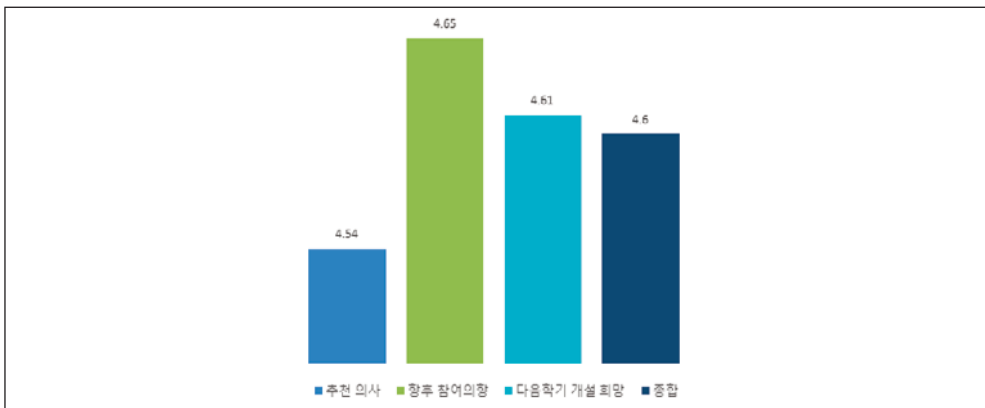
항목	전체	응답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이번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89	1	1	14	125	248	4.59
	100%	0.3%	0.3%	3.6%	32.1%	63.8%	



4) 향후 기대방향

- 앞으로도 <하늬바람>강좌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4.65점, 이번에 참여한 강좌가 다음 학기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가 4.61점, 이번 강좌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가 4.54점으로 조사됨

항목	전체	응답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이번 강좌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389	2	2	20	123	242	4.54
	100%	0.5%	0.5%	5.1%	31.6%	62.2%	
앞으로도 <하늬바람> 강좌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389	1	0	19	96	273	4.65
	100%	0.3%	0%	4.9%	24.7%	70.2%	
이번에 참여한 강좌가 다음 학기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	389	1	1	16	114	257	4.61
	100%	0.3%	0.3%	4.1%	29.3%	66.1%	
종합	4.60						



인천 역사시민대학 사업 결과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에게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강좌 진행
-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이해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 예산액 : 금20,000,000원

□ 사업내용

- 계양도서관 및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공동개최
- 계양도서관과 강화도서관에서 매주 월/목 오후 7~9시 진행

II. 사업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성과

□ 추진내용

- 상·하반기 인천·강화에서 총 27강 진행. 총 1,256명(평균 46.5명) 참여
 - 상반기 14강 총 634명(인천 418명, 강화 216명), 평균 48.7명 수강
 - ※ 계양강좌 7강 유적답사는 강의 4회 이상 참석자를 대상으로 답사에 실제 참여한 인원 집계이므로, 수강인원 평균에서 7강은 제외
 - 하반기 13강 총 622명(인천 438명, 강화 184명), 평균 47.8명 수강
- 상반기 개최 현황
 - 계양강좌 주제 : 궁궐·도성·보장처 ※ 6·7강은 강사 사정으로 당초 계획에서 1주씩 순연 개최

연번	날짜	세부주제	강사(소속)	참석(명)
1강	5/13(월)	왕도 수도 도성	홍순민(명지대학교 교수)	81
2강	5/20(월)	한성부 건설과 도시구조		63
3강	5/27(월)	한성부 파괴와 재건		62
4강	6/3(월)	도성과 위성		67
5강	6/10(월)	경복궁 중건과 도시 정비		67
6강	7/1(월)	종묘사직의 종적		50
7강	7/6(토)	*유적답사(창덕궁)		28
합계				418

- 강화강좌 주제 : 우리역사 속 도시 이야기

연번	날짜	세부주제	강사(소속)	참석(명)
1강	5/9(목)	신라 천년 왕경, 경주	박방룡 (신라문화유산연구 원장)	41
2강	5/16(목)	백제 고도(古都), 부흥을 꿈꾸다	심상욱 (백제고도문화재단책임 연구원)	32
3강	5/23(목)	고구려 도성, 미래와의 만남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31
4강	5/30(목)	가야의 발견	하승철 (경남발전연구원조사 연구위원)	32
5강	6/13(목)	국제도시 개성의 생활사	홍영의(국민대학교 교수)	28
6강	6/20(목)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수)	26
7강	6/27(목)	서울 600년의 발자취	신영문(서울특별시 주무관)	26
합계				216

○ 하반기 개최 현황

- 계양강좌 주제 : 근현대 인천의 도시 · 건축

연번	날짜	세부주제	강사(소속)	참석(명)
1강	9/2(월)	근대 인천의 도시계획	김용하(인천도시연구소 소장)	82
2강	9/9(월)	개항도시 제물포의 건축과 경관	손장원(인천재능대 교수)	69
3강	9/16(월)	일제강점기 인천의 관공서와 주택들	손장원(인천재능대 교수)	65
4강	9/23(월)	인천엔 성냥공장만 있었나: 정미소에서 경인공업벨트까지	배성수(인천도시역사관 관장)	51
5강	9/30(월)	인천의 관영주택과 사택	홍현도 (서울특별시 학예연구사)	61
6강	10/7(월)	부평 캠프마켓	한만송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	54
7강	10/14(월)	일제강점기-근대기를 거친 한국의 아파트 문화	박철수(서울시립대 교수)	56
합계				438

- 강화강좌 주제 : 섬에 깃든 삶의 흔적

연번	날짜	세부주제	강사(소속)	참석(명)
1강	9/5(목)	고고학에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교류	최성락(목포대 명예교수)	40
2강	9/19(목)	국제법상 우산국의 법적 지위 : 우산국의 역사와 오늘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35
3강	10/17(목)	화산섬 제주, 탐라의 역사와 문화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25
4강	10/24(목)	서해 도서지역 유적의 입지와 환경변화	박지훈(공주대 교수)	25
5강	10/31(목)	고려의 뱃길과 섬	문경호(공주대 교수)	29
6강	11/14(목)	강화에서 제주까지, 삼별초의 항해 일지	윤용혁(공주대 명예교수)	30
합계				184

※ 하반기 강화강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강의순서와 날짜 바뀜

□ 향후 개선 및 보완사항

○ 계양강좌

- 일부 강의는 일반적이거나 내용 미흡. 깊이 있는 강의 요
- 지역사 관련 강의도 포함 요망(예, 문학에 등장하는 계양 모습)
- 강의자료집과 강의 PPT를 가급적 일치 요망
- 주제에 비해 강의시간 짧음. 질의응답 시간 부족 등

○ 강화강좌

- 예고한 강의제목과 실제 강의내용이 다른 강의가 있었음. 일치 요망
- 강화지역사 연구하는 향토연구자 강의도 포함 요망 등

□ 언론보도현황 : 총 27건 보도

○ 상반기 : 17건

No.	보도처	보도자료명	보도일
1	파이낸셜 뉴스	인천역사문화센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최	2019.03.26.
2	세계뉴스 통신	인천역사문화센터, 2019 상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최 '우리역사 속 도읍과 궁궐·도성·보장처' 시민강좌 개최	2019.03.26.
3	뉴스 페이퍼	인천역사문화센터, 2019 상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최... 4월 3일부터 신청 가능	2019.03.26.
4	인천in	'우리역사 속 도읍과 궁궐·도성·보장처'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최... 4월3일부터 접수	2019.03.26.
5	인천 일보	우리역사 속 도시 어땠을까? 궁금하면 시민대학으로! 계양도서관·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내달 3일부터 신청받아	2019.03.28.
6	브레이크 뉴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설	2019.03.29.
7	THE KOREA NEWS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설	2019.03.29.
8	경기엔뉴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년 상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설	2019.03.29.
9	광주일등 뉴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년 상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설	2019.03.29.
10	브레이크 뉴스강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년 상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설	2019.03.29.
11	강원경제 신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년 상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개설	2019.03.29.
12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 계양도서관,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4.01.
13	세계타임즈	계양도서관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4.01.
14	내외신문	계양도서관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4.01.
15	인천in	계양도서관 '인천역사시민대학' 인문학 특강 주제 '궁궐·도성·보장처' 6월까지 7강	2019.04.01.
16	경인투데이 뉴스	인천 계양도서관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4.02.
17	이뉴스 투데이	계양도서관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4.02.

○ 하반기 : 10건

No.	보도처	보도자료명	보도일
1	뉴스페이퍼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개최 '근현대 인천의 도시·건축'과 '섬에 깃든 삶의 흔적들'	2019.07.29.
2	내외신문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3	인천뉴스	인천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4	에듀동아	인천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5	경인 투데이뉴스	인천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6	데일리그리드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7	서울일보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8	세계타임즈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9	중부뉴스통신	계양도서관 2019 하반기 인천역사시민대학 운영	2019.07.30.
10	인천일보	계양도서관·강화문화재연구소, 내달 '역사시민대학' 신청 접수	2019.07.31.

□ 사업 결과물

자료명	활용처	수량
상반기 계양강좌 자료집: 궁궐·도성·보장처	인쇄물 : 수강생 배포 PDF 파일: 시민 공개(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50부
상반기 강화강좌 자료집: 우리역사 속 도시 이야기	인쇄물 : 수강생 배포 PDF 파일: 시민 공개(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00부
하반기 계양강좌 자료집: 근현대 인천의 도시·건축	인쇄물 : 수강생 배포 PDF 파일: 시민 공개(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50부
하반기 강화강좌 자료집: 섬에 깃든 삶의 흔적들	인쇄물 : 수강생 배포 PDF 파일: 시민 공개(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00부

인천 트라이보울 교육사업 결과

□ 사업개요

1. 사업명 : 트라이보울 아트 클래스(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3. 사업장소 : 트라이보울 공연장 및 전시장
4. 참여대상 : 일반관객 2,688명, 문화소외계층 225명, 총 2,913명
5. 예산액 : 금32,000,000원

□ 사업목적

1. 공연 형식의 단발성 강연에서 연속성 있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사업 확장
2. 어린이, 청소년, 성인, 문화소외계층 등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3. 트라이보울 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시장, 로비, 무대 뒤, 센트럴파크 등 다양한 공간 활용
4. 공연·전시·축제를 연계한 융·복합형 프로그램 진행

□ 사업내용

1. 사업개요

구 분	1. 해피 클래스	2. 아트클럽	3. 아트 클래스 전시+
키워드	지역사회 문화예술 나눔, 문화복지	예술탐구 심화교실, 소규모 유료 워크숍	전시, 공연, 워크숍 융복합프로그램
기간/횟수	7-8월 / 6회	6-11월 / 12회	하반기 / 2회
장 소	트라이보울 전체 및 송도 일대	공연장, 전시장	전시장
대 상	지역복지회관 및 문화소외 계층 단체	어린이 / 가족 / 성인	전체
사업내용	1. 참여 단체 모집 2. 트라이보울 및 송도 투어 3. 문화체험, 역사탐구	1. 코딩 워크숍(어린이) 2. 인문, 음악 복합 워크숍(가족) 3. 음악 워크숍(성인)	1. 전시 연계 공연, 교육, 축제프로그램 2. 전시와 접목한 예술특강, 워크숍

2. 추진일정

프로그램 기획 / 계획수립(1~5월)	프로그램 진행 (6~11월)	프로그램 정산 (7~12월)
· 리서치 · 콘텐츠 구성 · 출연진 섭외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출연진 미팅·계약 · 세부 프로그램 조정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프로그램 진행 · 참여자 모집접수(회차별 계속) · 프로그램 홍보 · 교육 리뷰 SNS 업데이트 (사진, 영상, 카드뉴스 등)	· 비용 집행·정산 · 사업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자료 작성

□ 세부 프로그램

1. 해피 클래스

가. 사업내용

- 1)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 2) 트라이보울, G타워, 인천도시역사관, 센트럴파크 등 다양한 스팟을 여행하고, 문화 예술과 역사에 대해 탐구
- 3) 트라이보울의 공연, 전시 연계 체험 워크숍 진행
- 4) 다과, 왕복교통, 문화체험비 등 단체 성격 및 규모, 신청 순서 등에 따른 비용 지원
- 5) 프로그램 순서(단체별 일부 다름)

일 정	내 용	비 고
~10:00	단체에서 출발~송도 도착	
10:00~12:00	송도 투어	인천도시역사관, G타워 등
12:00~13:00	점심	
13:00~15:00	트라이보울 투어	시설투어, 워크숍
15:00~15:30	해단식	

나. 진행일정

번호	일정	단체명	참여인원	비고
1	07.26.(금) 10:30~15:30	계양키파지역아동센터	50명	초등학생, 중학생
2	07.30.(화) 10:00~15:00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44명	초등학생, 중학생
3	07.31.(수) 11:00~16:00	효성지역아동센터	43명	초등학생
4	08.02.(금) 11:00~16:00	주안웅기지역아동센터	25명	초등학생
5	08.09.(금) 10:30~15:30	다솜지역아동센터	32명	초등학생
6	08.28.(수) 13:00~17:00	신현신나는지역아동센터	31명	초등학생, 중학생
합 계			225명	

2. 아트 클럽

가. 사업내용

1) 코딩 클럽 : 사상을 코딩하다 2019

- 빛, 소리, 움직임을 다루면서 코딩하는 어린이 대상 미디어아트 워크숍

2) 가족클럽 : 마음을 다루다

- 가족이 함께 호흡과 명상, 음악감상을 통해 소통하는 가족대상 워크숍

3) 라이브클럽 : 남몰래 다루다

- 가사로 나를 표현하고, 노래로 완성하며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워크숍

나. 진행일정

번호	일시	프로그램 내용	장소	인원(명)
1	6/2~6/30 토요일 오전 11시(5회)	〈코딩클럽-상상을 코딩하다 2019〉 -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미디어 아트 교육 프로그램 - 직접 만든 물체를 프로그래밍하여 빛, 소리, 움직임을 다루면서 다양한 감각을 깨우는 워크숍	공연장	95
2	7/27~28 토·일요일 오전 11시(2회)	〈가족클럽-마음을 다루다〉 - 가족이 함께하는 호흡과 명상, 음악감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 인간 뇌의 특별함과 창의성을 깨우는 워크숍	공연장	110

3	10/19~11/16 토요일 오전 11시(5회)	〈라이브클럽-남몰래 다루다〉 - 가사로 나를 표현하는 자기표현 프로그램 - 나만의 노래 한 곡을 완성하고, 완성된 노래를 발표하고 녹음 진행 - 음악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워크숍	공연장, 전시장	60
합계				265

3. 아트 클래스 전시+(플러스)

가. 사업내용

- 1) 전시연계 교육, 공연 폭제 프로그램<선셋 서점>
- 2) 전시와 접목한 예술특강, 워크숍<사진과 회화 : 다름을 넘어>

나.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내 역	참여인원
선셋 서점	오프닝 마켓	11.02.(토) 12:00~18:00	독립서점 14곳 마켓	612명
			강연(이슬아)-서점에서 보낸 시간	50명
			워크숍(우지현)-나만의 북커버 드로잉	15명
			세미나 1-책방 오픈 분투기	30명
			세미나 2-삶의 방식으로서의 서점	30명
			공연(김므즈, 이여름)	100명
	전시	11.03.(일) ~ 11.16.(토) 13:00~17:30	- 인천의 독립서점 7곳 소개 및 추천도서 전시 - 필사, 낭독의 방 진행	1,556
사진과 회화 : 다름을 넘어		12.14.(토) 13:00~16:00	- 작가와 함께 전시장을 돌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대담 -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워크숍	30
합 계				2,423

□ 홍보현황

1. 사업 홍보

매체	제 목
온라인	-재단 및 트라이보울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문화예술관련 홈페이지, 지역 카페 등 온라인 홍보물 게재, 네이버 '우리동네' 메인 소개 -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오프라인	- 야외 현수막 설치, 부평아트센터, 계양문화회관 등 유관기관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 - 인천시, 연수구, 송도1,2,3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포스터 부착 -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문화소외계층 대상에 사업 안내

2. 언론보도

번호	보도일자	제 목	보도매체
1	2019.05.23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오는 6월 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세계뉴스통신
2	2019.05.29	트라이보울, 주말엔 초등학교 아지트로	인천일보
3	2019.07.19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세계뉴스통신
4	2019.10.30	지식의 보고 '인천 서점' 들여다보기	기호일보
5	2019.10.30	개성있는'인천독립서점'7곳소개...트라이보울,2일부터 '선셋서점' 전시	경인일보
6	2019.10.30	작지만 개성있는 '선셋 서점'을 아시나요	동아일보
7	2019.10.31	독립서점 주인장들 '분투기' 트라이보울 채운다	인천일보

□ 자체 평가 및 향후계획

1.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시킴
2. 문화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해피 클래스>는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문화재단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전시<선셋 서점>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접점을 늘리

고자 노력하였고, 오프닝으로 트라이보울 내부 곳곳을 활용하여 마켓을 운영함으로 공간 활용성을 제고하였음

4. 2년차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클럽>은 성인대상 자기표현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호평도 받고 있음. 음악을 콘텐츠로 하여 트라이보울 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고 연속적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5. 별도의 교육장이 없는 한정적인 공간이나 프로그램 규모와 대상에 따라 공연장 및 전시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임
6. 소규모 유료 워크숍은 매회 매진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티켓 금액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야함
7.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트라이보울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이 필요함
8. “인천아트플랫폼·트라이보울 위탁운영 평가 알림”(공간문화-2792호) 평가 의견 및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진행시 프로그램 내용 및 시설환경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함

※ 의견요약 : 유료화 프로그램, 시즌 프로그램 운영, 대기 공간 마련 등

한국근대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I. 세계문학특강

1. 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 세계문학특강
- (2) 주 제 : <문학이 있는 저녁 - 세계문학특강 : 노벨문학상 특집 3>
- (3) 사업기간 : 2019. 8. ~ 12.
- (5) 예산액/지출금액 : 3,800,000원

2. 내용 및 추진과정

(1) 사업목적 :

- 지속적인 문학관 재방문 계기 마련
- 국제문화도시 다문화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세계문학 교양 강좌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시민 강좌 기획·운영

(2) 사업내용 :

-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
- 세계문학특강 강의 진행

(3) 추진과정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식 검토 : ~ 2019년 8월 4주
- 세부기획 확정 및 강사섭외 : ~ 2019년 9월 4주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 2019년 10월 3주
- 프로그램 진행 : ~ 2019년 12월 2주
(※2019. 10. 16. ~ 12. 11. 총 8회)
- 결과보고 : ~ 2019년 12월

(4) 세부 내용

① 개요

- 기 간 : 2019년 10월 16일 ~ 12월 11일 매주 수요일, 8회
- 시 간 : 18:30 ~ 21:30
- 장 소 : 한국근대문학관 3층 강의실

· 주 제 : <문학이 있는 저녁 - 세계문학특강 : 노벨문학상특집 3>

②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회차	내 용	강 사	날 짜
1	한국문학과 노벨문학상 그리고 번역	강의 김화영(고려대) 진행 선우은실(인하대)	10.16
2	타고르와 지구적 세계문학	김재용(원광대)	10.23
3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마술적 사실주의	우석균(서울대)	10.30
4	“그러나 인간의 투쟁이 곧 인간의 성공이다!” : 유진 오닐의 비극적 세계관과 삶의 긍정	이용화(인천대)	11.13
5	그들은 왜 일본에 맞섰나? - 모옌의 「홍까오량 가족」	신진호(연세대)	11.20
6	사르트르는 왜 노벨문학상을 거부했는가?	변광배(한국외대)	11.27
7	고디머와 함께 춤을 : 고디머의 눈으로 만나는 아프리카	이석호(카이스트)	12.4
8	배고픈 천사의 시 -헤르타 뮐러의 수용소 문학 「숨그네」	서유정(한국외대)	12.11

(5) 홍보

- 방 식 : 보도자료 및 온라인 홍보, 서구 구정 홍보지 <Green 서구> 게재
- 문학관 홈페이지, 메일링 등
- 배너 및 웹 홍보파일 제작
- 언론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현황 : 총 4건

번호	언론사명	제 목	게재일
1	한국경제	인천문화재단, 노벨문학상 수상작 함께 읽는 특강 진행	10.7
2	기호일보	문학이 있는 저녁 ‘특별한 만찬’으로 초대	10.7
3	인천 in	‘한국문학부터 세계문학까지’ 다양하게 즐기기	10.8
4	인천일보	처음이라요, 노벨문학상을 특강하는 건	10.8.

3. 사업 결과물 및 평가

(1) 사업결과물

NO.	사업결과물	발생시기	발생수량	용도
1	사진	2019.12	1식	보관자료

(2) 평가(설문결과 분석 반영)

〈수강생-설문자 관련 사항〉

- 이번 강좌는 약 4:6의 비율로 여성 수강생의 비율이 높았음. 이를 연령과 연관하여 분석 하면, 40대 이상의 여성이 본 강좌의 주 수강생임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중 2/3이 강좌 주제 자체에 관심을 갖고 강의에 참여했다고 하여, 수강생 대부분 이 강좌 기획·구성·강사진 등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 뒤 수강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는 강좌 기획 자체가 수강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바, 강좌 기획-내용이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8명이 강좌의 정보를 문학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얻 었음. 그 다음이 문학관 홈페이지 25%임. 처음으로 문학관 홈페이지가 2위가 되었는데, 이는 문학관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하고 할 수 있음.
- 참가횟수는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8명이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1위임. 이는 이번 세계문학 강좌가 일종의 '문학관 마니아'들이 주로 수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없다'와 '1회'가 각각 1명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됨.

〈강좌 내용 관련 사항〉

- 강좌 만족도는 모두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6부분 평균 97점으로 조사됨. 종 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세계문학특강-노벨문학상 특집 강좌는 수강생들이 매우 크게 만족한 강좌였음을 알 수 있음.
- 여덟 번 강의 중 첫 강좌와 마지막 강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옴. 첫 강좌는 원로 학 자와 신진 평론가의 대담 형식으로 기획했는데, 강연자의 지명도와 진행 방식이 호평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인문학 관련 강좌는 3/4에 해당하는 인원(27명)이 미술사를 꼽았음. 강의 설문에서 미 술사가 지속적으로 1위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 강의 기획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관식 설문 결과〉

- 좋아하는 문인은 총 9명이 거론되었음. 김소월과 박경리가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1명임. 근현대 작가 및 소설가가 중심임.
- 마지막 설문-강좌 희망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내용이 모두 제각각임. 희망교수 및 강좌, 간식, 강의시간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같은 내용이 2인 이상 나온 것은 없었음.

〈총평 : 향후 강좌 기획 및 진행시, 기타 고려 사항〉

- 강의 내용 및 강사 · 강의진행 관련
 - 이번 세계문학특강은 강의 만족도가 95점 이상으로 조사되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
 - 강좌의 성공 요인에는 4회 이상 수강한 문학관 강좌 마니아층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됨.
 - 이번 강좌는 처음으로 첫 강좌를 지명도 높은 원로 학자를 초빙해 대담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수강생들의 호응이 커 차기 강좌 기획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 홍보, 수강신청 및 수강생 관련
 - 이번 강좌에서는 문학관 홈페이지를 보고 수강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문학관 홈페이지가 점차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II. 인문교양특강

1. 사업 개요

- (1) 사업명 :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 인문교양 특강
 - (2) 주 제 : 〈인문교양이 있는 저녁 - 여성의 삶 · 사랑 · 에로스를 말하다〉
 - (3) 사업기간 : 2019. 7. ~ 8.
 - (4) 예산액 : 1,900,000원
- ※전문직여성 인천클럽 특강 예산 집행비 (3,000,000원 별도)

2. 내용 및 추진과정

- (1) 사업목적 :
 - 특화된 강좌 기획 및 운영을 통한 문학관 인지도 제고
 - 강좌프로그램을 통한 관람객의 지속적 문학관 방문 제고

(2) 사업내용 :

-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
- 전문직여성 인천클럽과의 실무 협약을 통한 특별강좌 2강 운영

(3) 추진과정 :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식 검토 : ~ 2019년 6월 2주
- 전문직여성 인천클럽과의 실무 협약 체결: ~ 2019년 6월 4주
- 세부기획 확정 및 강사섭외 : ~ 2019년 6월 4주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 2019년 7월 1주
- 프로그램 진행 : ~ 2019년 7월 2주
(※ 2019. 7. 11. ~ 8. 29. 총 7회)
- 결과보고 : ~ 2019년 9월

(4) 세부 내용

① 개요

- 기 간 : 2019년 7월 11일 ~ 8월 29일 매주 목요일, 7회
- 시 간 : 18:30 ~ 21:30
- 장 소 : 한국근대문학관 3층 강의실
- 주 제 : <인문교양이 있는 저녁-여성의 삶 · 사랑 · 에로스를 말하다>

②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회차	내 용	강 사	날짜
1	몸과 인문학: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고미숙(고전평론가)	7.11
2	연애의 예감	이경림(서울대)	7.18
3	나혜석의 혁명과 상처: 사랑이 죄인가요?	한금윤(삼육대)	7.25
4	영자의 수난시대: 군사정권기 한국 영화 속에 비춰진 여성 섹슈얼리티와 성담론	김효정(수원대)	8.1
5	가난의 기억과 여성이라는 굴레	강지윤(연세대)	8.8
6	미투와 나의 삶, 선 자리와 갈 길	변신원(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8.22
7	아직 시작도 못한 이야기	이경자(소설가) · 박정윤(소설가)	8.29

(5) 홍보

- 방 식 : 보도자료 및 온라인 홍보,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 홍보
 - 문학관 홈페이지, 메일링, 인천문화재단 문자 및 카카오톡, 트라이보울 문자메시지
- 배너 및 웹 홍보파일 제작
- 언론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현황 : 총 4건

번호	언론사명	제 목	게재일
1	세계뉴스통신	한국근대문학관, 전문직여성인천클럽과 공동으로 교양강좌 개설	7.9
2	아주경제신문	한국근대문학관, 전문직여성인천클럽과 공동으로 교양강좌 개설	7.9
3	인천일보	한국근대문학관서 교양 쌓기	7.10
4	아주경제신문	한국근대문학관-전문직여성 인천클럽, 8월 29일 이경자, 박정윤 소설가 초청 대담 진행	8.26

3. 결과물 및 평가

(1) 사업결과물

NO.	사업결과물	발생시기	발생수량	용도
1	사진	2019.7 ~ 2019.8	1식	보관자료

(2) 평가(설문결과 분석 반영)

〈수강생-설문자 관련 사항〉

- 이번 강좌는 약 11:14의 비율로 여성 수강생의 비율이 높았음. 이를 연령과 연관하여 분석하면, 5-60대 이상의 여성이 본 강좌의 주 수강생이라고 할 수 있음.
- 응답자 중 약 45%의 수강생이 강좌 주제 자체에 관심을 갖고 강의에 참여했다고 하여, 수강생 대부분이 강좌 기획·구성·강사진 등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 뒤 수강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같은 비율의 수강생들이 문화기관 교양강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 강의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음. 따라서 문학관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인문교양강좌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67%에 해당하는 수강생이 강좌의 정보를 문학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얻었음. 그 다음으로 주변 지인의 소개 22%를 차지했음. 본 강좌 주요 홍보 수단이 메일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홍보 메일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문학관 강좌 4회 이상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남. 문학관 강좌를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고정 수강생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문학관에서 제공하는 시민 대상 강좌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 있음.

〈강좌 내용 관련 사항〉

- 강좌 만족도는 모두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6부문 평균 89점으로 조사됨.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강좌는 수강생들이 대체로 만족한 강좌였음을 알 수 있음.
- 일곱 번 강의 중 세 번째 강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옴. 이번 강좌는 전문직여성 인천클럽과 공동주최한 강좌로 첫 강좌는 고미숙(고전평론가)이 진행했고, 마지막 강좌는 소설가 이정자·소설가 박정윤이 대담으로 진행했음. 하지만 세 번째 강좌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강사가 진행한 강좌가 아니었음. 세 번째 강좌의 핵심은 나혜석의 삶과 작품을 통해 수강생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지점을 흥미롭게 제공했다는 점에 있음.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강사의 유명세보다 강좌의 내용을 토대로 만족도를 평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인문학 관련 강좌는 약 1/4에 해당하는 인원이 각각 영화와 음악사를 꼽았음. 그 뒤를 철학과 미술사가 차지했음. 수강생들이 문학관 강좌를 통해 다양한 인문학적 교양을 쌓는 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주관식 설문 결과〉

- 좋아하는 문인으로 강경애, 김정한, 박경리, 전광용, 이문구 등이 거론되었음. 교과서에 나온 근현대 작가가 언급된 것이 특징임.
- 마지막 설문-강좌 희망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같이 읽고 토론하는 강좌’ 및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이 언급되었음. 지식 전달형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강좌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추후 새로운 형태의 강좌 개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총평 : 향후 강좌 기획 및 진행시, 기타 고려 사항〉

○ 강의 내용 및 강사·강의진행 관련

- 이번 강좌는 첫 번째와 마지막 강의를 전문직여성 인천클럽과 공동주관하는 강좌였음. 이로 인해 강의 수강생의 숫자가 강좌마다 편차가 심했음. 총 강좌 수강생의 숫자는 90명 가까이 되지만,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숫자는 매우 적었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강사 초빙 시 홍보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으나, 수강생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대책을 고안할 필요 있음.
- 전체적인 강의 만족도가 89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삶과 밀착된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었던 강좌 기획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학 텍스트 독해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룬 3강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음.

○ 홍보, 수강신청 및 수강생 관련

- 이번 강좌에서는 메일링을 통해 신청했다는 수가 많았음. 그간 문학관 강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덕분에 문학관 강좌에 대한 신뢰로 수강하는 수강생 층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고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활동을 기획하여 다른 문화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 이번에 구정 홍보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무엇보다 강좌 개설 기간 동안 수강생의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근대문학관 강좌 고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희망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음. 가령 〈다시 듣고 싶은 강좌〉 등을 조사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함으로써 좀 더 심화된 형태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음
- 문학 텍스트 독해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강좌를 기획할 필요 있음. 이 때 강좌 형식을 기존의 정보전달식 강좌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강사 섭외가 관건이겠으나, 문학관 강의를 다른 문화기관의 강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임.

Ⅲ. 인문학 특강

1. 사업 개요

- (1) 사업명 :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 인문학 특강
- (2) 주 제 : <인문학이 있는 저녁 - 죽음, 소멸이 아닌 옮겨감>
- (3) 사업기간 : 2019. 1. ~ 5.
- (4) 예산액 : 3,000,000원
- ※전문직여성 인천클럽 특강 예산 집행비 (3,000,000원 별도)

2. 내용 및 추진과정

(1) 사업목적 :

- 지속적인 문학관 재방문 계기 마련
- 국제문화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인문학 교양 강좌 운영
- 고령화 사회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시민 강좌 기획·운영

(2) 사업내용 :

-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
- 인문학 특강 강의 진행

(3) 추진과정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식 검토 : ~ 2019년 1월 4주
- 세부기획 확정 및 강사섭외 : ~ 2019년 2월 4주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 2019년 3월 2주
- 프로그램 진행 : ~ 2019년 5월 2주
(※2019. 3. 13. ~ 5. 8. 총 8회)
- 결과보고 : ~ 2019년 5월

(4) 세부 내용

① 개요

- 기 간 : 2019년 3월 13일 ~ 5월 8일 매주 수요일, 8회
- 시 간 : 18:30 ~ 21:30
- 장 소 : 한국근대문학관 3층 강의실
- 주 제 : <인문학이 있는 저녁 - 죽음, 소멸이 아닌 옮겨감>

②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회차	내용	강사	날짜
1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정현채 (前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	3. 13
2	죽음, 그 후는 알 수 없는 세계인가 1		3. 20
3	죽음, 그 후는 알 수 없는 세계인가 2		3. 27
4	자살에 관한 담론 1		4. 3
5	자살에 관한 담론 2		4. 10
6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1		4. 17
7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2		4. 24
8	훌륭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		5. 8

(5) 홍보

- 방 식 : 보도자료 및 온라인 홍보, 연수구 구정홍보지 <연수한마당> 게재
- 문학관 홈페이지, 메일링 등
- 배너 및 웹 홍보파일 제작
- 언론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현황 : 총 4건

번호	언론사명	제 목	게재일
1	뉴스페이퍼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인문학이 있는 저녁- 죽음, 소멸이 아닌 옮겨감' 실시	2. 25.
2	경인일보	'죽음'에 대한 정현채 교수의 인문학 강의	2. 25.
3	기호일보	인천문화재단 근대문학관, 내달 13일부터 '인문학이 있는 저녁' 운영	2. 25.
4	인천일보	죽음, 새롭게 보고 제대로 맞자	3. 1.

3. 결과물 및 평가

(1) 사업결과물

NO.	사업결과물	발생시기	발생수량	용도
1	사진	2019. 5.	1식	보관자료

(2) 평가(설문결과 분석 반영)

〈수강생-설문자 관련 사항〉

- 이번 강좌는 약 4:6의 비율로 여성 수강생의 비율이 높았음. 이를 연령과 연관하여 분석하면, 40대 이상의 여성이 본 강좌의 주 수강생이라고 할 수 있음.
- 응답자 중 3/4이 강좌 주제 자체에 관심을 갖고 강의에 참여했다고 하며, 수강생 대부분이 강좌 기획·구성·강사진 등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 뒤 수강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는 강좌 기획 자체가 수강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바, 강좌 기획-내용이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죽음학’이라는 특성상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판단됨.
-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26명이 강좌의 정보를 문학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얻었음. 그 다음이 언론보도 19%임. 이번 강좌는 서구의 〈Green 서구〉와 중구의 〈두드림 특〉, 연구구의 〈연수한마당〉 중 연구구 규정홍보지에만 홍보가 가능했는데, 연구구는 그동안 규정홍보지의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서구 홍보지 효과가 컸는데, 향후 강좌는 〈Green 서구〉 게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가횟수는 응답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20명이 ‘처음’이라고 응답하여 1위임. 이는 3번 문항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문학보다는 ‘비문학’ 강좌 ‘죽음학’ 강좌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수강생층을 새로 발굴한 것이라고 판단됨. 관건은 이들을 계속 문학관 수강생 혹은 문학관 방문객으로 붙잡아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강좌 내용 관련 사항〉

- 강좌 만족도는 모두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6부분 평균 96점으로 조사됨.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죽음학’ 강좌는 수강생들이 매우 크게 만족한 강좌였음을 알 수 있음.
- 여덟 번 강의 중 첫 강좌와 마지막 강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옴. 처음과 마지막은

일종의 개론 강좌였는데, 수강생들은 인간의 ‘죽음’과 ‘죽음 맞이’, ‘사후 세계’ 등 ‘죽음’과 ‘사후 세계’의 존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음.

- 인문학 관련 강좌는 약 60% 해당하는 인원(35명)이 미술사를 꼽았음. 그 뒤를 철학이 차지했는데, ‘철학에서 바라보는 죽음’ 강좌를 기획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됨.

〈주관식 설문 결과〉

- 좋아하는 문인은 총 13명이 거론되었음. 황순원과 박완서가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1명임. 근현대 작가 및 소설가와 시인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마지막 설문-강좌 희망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14%에 해당하는 8명이 계속해서 ‘죽음학’ 강좌 개설과 정현채 교수가 강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이 외에 시인 강좌, 인문학으로서의 의학 강좌, 시니어 맞춤형 강좌, 여행 관련 강좌 등의 요구가 있었음.

〈총평 : 향후 강좌 기획 및 진행시, 기타 고려 사항〉

- 강의 내용 및 강사 · 강의진행 관련
 - 이번 강좌는 ‘죽음학’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의 인문학 강좌였는데, 전체적인 강의 만족도가 95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
 - 강좌의 성공 요인에는 강사의 개인적 특성도 크게 작용했음. 강의를 맡은 정현채 교수는 국내 소화기내과의 대표적 명의로 그가 재직한 서울대병원에서 40년 근무한 인물임. 또한 진료를 받으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유명한 의사였음. 수강생 중에는 제자 의사나 진료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 수강생 충성도가 높았음.
 - 이번 강좌는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한 명의 강사가 전체 여덟 강좌를 책임졌음. 강의의 연속성과 깊이, 다양한 분야 탐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 거의 답변을 하지 않는 마지막 주관식 질문에서 ‘죽음학’ 강좌의 연속적 개설과 정현채 교수의 강의를 요구한 사람들이 8명(14%)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처음임.
- 홍보, 수강신청 및 수강생 관련
 - 이번 강좌에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수강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두 자리를 넘었는데, 이는 기획의 파격과 유명 의사를 초빙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Green 서구〉 게재가 무산되었는데, 그 동안 수강생 동원력이 가장 큰 매체를 놓쳤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임. 매체의 담당자 변경이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일 터인데 향후 서구청측과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이번 '죽음학' 강좌도 매우 성황리에 운영되었음. 2018년 르네상스 미술사 강좌에 이는 성공인데 책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줄어든 사회 현실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하지만 문학 외의 인문학 강좌에 대한 수요는 결코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좌를 선제적·능동적으로 발굴·기획할 필요가 있음.

우리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 사업개요

1. 사업명 : 우리미술관 교육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4월~11월
3. 프로그램별 교육일자

	상반기	하반기
어린이반	2019.04.13.~06.15.(토, 2반, 10차시)	2019.08.24.~11.02.(토, 2반, 10차시)
도자기반	2019.04.19.~06.07.(금, 8차시)	2019.09.20.~11.08.(금, 8차시)
어르신반	2019.04.11.~05.30.(목, 8차시)	2019.09.19.~11.14.(목, 8차시)
청소년	〈미미(微美)팩토리〉전시 연계 프로그램 2019.7.19.~7.31.(3차시)	
	〈조용한 그림展전시 연계 프로그램 2019.8.07.~8.13.(4차시)	

4. 장 소 : 우리미술관 일대
5. 운영차시 및 교육참여인원 : 총79차시, 누적인원:851명
6. 예산액 : 29,645,800원

□ 사업목적

1. 우리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2. 문화나눔 결과전시〈우리들의 이야기〉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3. 지역의 문화자원(전래동화“괭이부리 호랑이”)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진행

□ 세부내용

1. 어린이 문화나눔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우리미술관 문화나눔 어린이반
 -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우리미술관 교육관 및 만석동 일대
 - 프로그램 진행
 - 가. 상반기: 10주 4.13.~6.15.(토), 오전반 9:30~12:00/오후반 12:30~14:30

나. 하반기: 10주 8.24.~11.02.(토), 오전반 9:30~12:00/오후반 12:30~14:30

○ 수업료 : 무료

○ 프로그램 내용 : 통합 문화예술교육 (음악, 연극, 미술) 프로그램

가. 상반기: 우리미술관이 개발한 <팽이부리 호랑이>교재로 수업 진행

나. 하반기: '바다'를 수업 주제로 다양한 예술활동

○ 참여강사 : 김규리·임현주(연극), 김영란(미술), 박상명(음악)

○ 누적참여 : 총545명

2. 도자기 문화나눔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우리미술관 문화나눔 도자기반

○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우리미술관 교육관

○ 프로그램 진행

가. 상반기: 10주 4.19.~06.07.(금), 14:00~16:00

나. 하반기: 10주 9.20.~11.08.(금), 10:00~12:00

○ 수업료 : 무료

○ 프로그램 내용 : 실용적인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생활에서 사용하고, 참여자들이 각자 '마을'을 주제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완성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참여강사 : 예성호(주강사), 이동하(보조강사)

○ 누적 참여자: 총158명

3. 노인 문화나눔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우리미술관 문화나눔 어르신반

○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우리미술관 교육관

○ 프로그램 진행

가. 상반기: 4.11.~5.30.(목), 17:00~19:00

나. 하반기: 9.19.~11.14.(목), 16:00~18:00

○ 수업료 : 무료

○ 프로그램 내용 : 통합문화예술교육(음악, 미술)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 참여강사 : 류은혜(주강사), 유민선(보조강사)

○ 누적 참여자: 총148명

4. 전시연관 청소년 프로그램

가. <조용한 그림展>

- 프로그램명 : 우리미술관 청소년 한국화 워크숍
-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우리미술관 교육관
- 프로그램 진행 : 7.19.~7.31.(3차시 진행, 3시간 수업)
- 수 업 료 : 무료
- 프로그램 내용 : 장진 작가의 미디어 아트 전시와 연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수묵화 그리기, 나만의 수묵화 부채 제작
- 참여강사 : 조세민, 곽수영, 양재영
- 누적 참여자: 총33명

나. <미미(微美)팩토리展>

- 프로그램명 : 우리미술관 청소년 미디어아트 워크숍
-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우리미술관 교육관
- 프로그램 진행 : 8.7.~8.13.(4차시 진행, 3시간 수업)
- 수 업 료 : 무료
- 프로그램 내용 : 조세민 작가의 미디어 아트 전시와 연관하여, 동구 산업화 배경이해, 키네틱 아트와 결합된 페이퍼 토이 제작 워크숍
- 참여강사 : 조세민, 곽수영, 양재영
- 누적 참여자: 총58명

□ 홍보 및 기타 사항

○ 프로그램 주요 홍보

- 가. 온라인 : 우리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나.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 우리미술관 인근에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만석동 사무소 및 동구 계시대 5곳에 포스터 부착

○ 결과자료집 제작

- 가. 활용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담은 캘린더 형태로 제작함
- 1) 세부 정보

구분	종류	규격 (가로×세로)	수량	비고
디자인	이미지 편집작업	-	1식	우리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진과 정보로 인쇄
인쇄	4도, 표지/1p	148×210	1×200장	
	4도, 내지/16p	148×210	16×200장	
	1도, 내지/192p	148×210	148×200장	
제작 형식	무선제본 (다이어리 형태)	-	150개	

□ 자체 평가

1. 프로그램 성과

-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자를 어린이, 30~40대, 노인으로 3연령대의 주민으로 정하여 폭넓게 운영하였음.
- 우리미술관에서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마련함.
- 지역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 문화나눔 프로그램 차시를 늘려 총 40차시를 운영함(2018년 2개반, 16차시→ 2019년 2개반, 20차시)
- <미미(微美)팩토리> 전시와 <조용한 그림> 전시를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체험의 기획 확대
- <우리들의 이야기> 전시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취감 및 지역주민으로써의 자긍심 고취

2. 향후 개선책

- 원활한 교육 내용 전달을 위한 마이크 등의 음향 장비 보강이 필요함
- 2020년도 문화나눔 프로그램도 2019 진행한 문화나눔 프로그램과 연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 프로그램 진행 강사들과 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보강과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늘어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함

Ⅲ. 유사 기관 사례 조사

1. 사례조사 개요

1) 사례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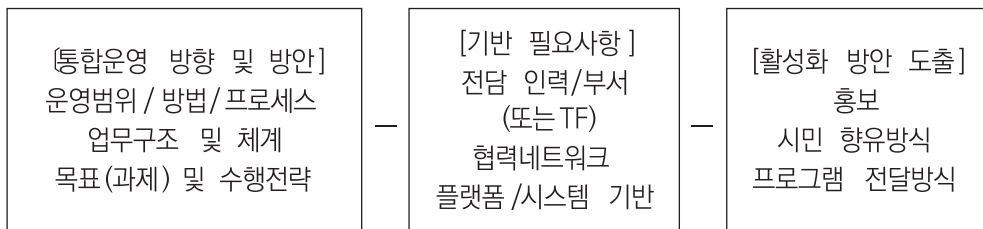
| 재단 내 여러 부서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수행 상 연계성을 확보함 |

- 인천문화재단은 산하 부서 및 소속기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소속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교육효과의 달성이 어려워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기존 교육프로그램 및 담당 부서 간 협력 연계 등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에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함
-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통합 사례들을 선정하여 이 사업들의 모델들을 분석함으로써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통합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안점을 도출하고자 함

| 타 지자체 및 재단의 사례조사를 통해 벤치마킹의 세부 방안들을 마련함 |

- 인천문화재단 교육분야 소속기관 통합운영 부문에서의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운영 범위, 운영방법, 운영조직 및 프로세스 등의 세부 지점 상 시사점, 수행기반, 활성화 방안에서의 시사점 등을 모색함
- 통합운영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소속기관-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연계, 유사장르에서의 연계, 물리적 접근성에서의 지역연계, 사업성격 유사성에서의 연계, 사업수행 시기 유사성에서의 연계 등을 검토함

사례조사의 검토 범위



2) 인천문화재단 및 사례지 현황검토

| 소속 기관들을 주관·연계하는 상위 총괄부서 보이지 않음, 위계가 혼재됨 |

○ 조직 : 2실 1본부 2팀, 2부, 5기관 (+ TF)

○ 조직도 상에서는 다수의 조직과 사업을 주관하고 연계하는 상위(또는 총괄) 조직체계가 보이지 않음, 실, 본부, 부, 기관(관 및 센터) 등 위계가 다른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음

※ 인천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체계

인천문화재단 인력 현황

구분	인원	구분	인원
혁신감사실	1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
정책협력실	4	인천문화유산센터	7
경영본부	-	인천아트플랫폼	10
전략기획팀	5	트라이보울	9
경영지원팀	12	한국근대문학관	4
창작지원부	12	남북교류사업TF	4
시민문화부	7		
우리미술관	2		
계			85
출처: 재단 홈페이지(2020.11.16.기준)			

- 설립연도 : 2004.12(등기 기준)
- 조직 : 2실 1본부 2팀, 2부, 6기관
- 인력 : 85명(공무직 제외)



인천문화재단 조직도

사례지 종합비교표

사례지	기초정보	구조	인력	사업수	예산*	인구
인천 문화 재단	설립연도 : 2004	2실 1본부 2팀, 2부, 5기관	85명	81개	296억원	295만 명
	주요 업무(사업)			운영시설		
	- 문화예술 기금지원 사업 - 시민문화 활성화사업 - 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 시설운영 및 관리 - 강화/인천지역 역사연구 - 인천시위탁사업 등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인천근대박물관 - 인천역사문화센터 - 트라이보울 - 우리미술관 - 인천아트플랫폼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 생활문화센터		
[지자체] 성남시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5과	54명**	약70개**	- 국 단위 예산: 1,478억 - 문화예술 부문예산 : 749억	95만 명
	성남문화재단 설립연도 : 2004	1실 3국 10부	127명	55개	328억	
	주요 업무(사업)			운영시설		
	- 청소년복지교육·문화·문화재·관광· - 체육 등 정책입안 및 지원 - 교육·문화·문화재·관광·체육 분야 - 개선사업, 시설운영 - 성남형 특성화 사업			·판교박물관 (문화재과), 외국어체험센터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신해철거리 ·문화의 집, 문화원 ·성남종합운동장, 시립체육시설		

사례지	기초정보	구조	인력	사업수	예산*	인구
[지자체] 성남시	(재단)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성남시 위탁사업			성남아트센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성남미디어센터, 공공예술창작소/청년예술창작소, 책 테마파크, 위례 스토리박스, 약기도서관/세계약기전시관,		
[재단] 성북 문화 재단	설립연도 : 2012	3부	205명	71개	163억	45만 명
	주요사업			운영시설		
	· 시네센터, 극장, 미술관, 도서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축제 등 사업 운영 ·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 문화사업부 : -(지역문화팀)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천장산우화극장,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청년살이발전소 -(구립미술관운영팀)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최만린미술관, 성북어린이미술관 공자람, 거리갤러리 -(공연예술팀) 성북구민, 성북여성회관, 꿈빛극장 -(영상미디어팀) 아리랑시네센터 · 도서관사업부 : -(도서관기획팀) 아리랑도서관, 정릉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종암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장위행복누리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금빛도서관, 청수도서관, 해오름도서관등		

사례지	기초정보	구조	인력	사업수	예산*	인구
[지자체] 수원시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4과	64명***	-	- 국 단위 예산: 1,823억 - 문화예술부 문 예산 : 749억	123만 명
	수원문화재단 설립연도 : 2011	2국 7부 21팀	172명	75개	295억	
	주요 업무(사업)			운영시설		
	• 문화예술 교육·문화재·관광·체육 정책 입안 및 지원 • 문화시설 및 문화재활용, 인문학 지원 • 관광마케팅 축제, 컨벤션 운영, 스포츠산업 유치 • 수원형 특성화 사업			• 문화재단 및 문화원 관리, 부국원 • 수원화성 관리, 컨벤션센터, 평생학습관, 월드컵경기장, 광고수련원,		
	(재단)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의 사업시행 -수원화성 시설, 문화공간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 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수원SK아트리움 운영 및 공연사업			수원SK아트리움, 수원제1,2 야외음악당 행궁길갤러리,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수원전통문화원 화서사랑채, 한옥기술전시관, 실험목장 AGIT 슬기샘도서관, 지혜샘도서관, 바른샘도서관		

* 예산은 '연간예산' 기준(재단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국고(기금) 등 포함)

**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정규인력 98명 중 문화재/관광/체육/박물관건립팀 34명 제외
「성남시 문화정책중장기발전방안」(2015) 기준 추산 집계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정규인력 91명 중 문화재/체육팀 27명 제외
수원시 홈페이지 > 세입세출현황 > 사업 및 예산정보 > 문화체육교육국

자료: [인천문화재단]: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기반시설총람; 인천시 공공데이터(2020.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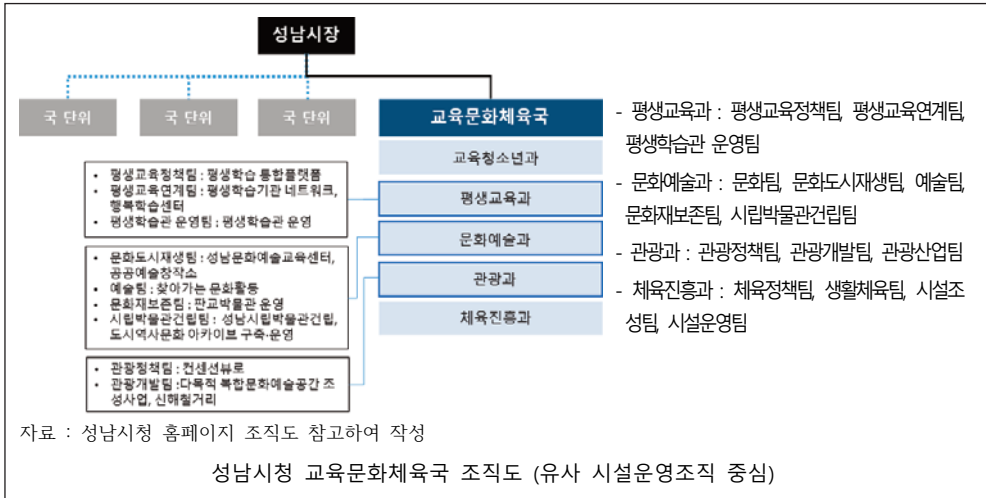
[성북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통계(2020.3/4분기)

[성남시]: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기반시설총람;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 문화정책중장기발전방안(2015), 2020 주요업무

[수원시]: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기반시설총람,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2. 사례 대상지 세부현황

1) [지자체] 성남시 : 시민중심 평생학습 통합기능 강화 모델



|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 포괄하는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연계 모델 구상

- (방향) 시민중심 평생학습 통합기능 강화가 주요 과제로, 기관 대 기관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연계 중심이 아닌 평생교육 6대 영역(학력보완, 기초문해,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휴먼웨어가 연계되도록 함
- (범위) 성남시청을 중심으로 성남시 평생학습관과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축으로 민간부문(가정, 기업, 문화센터, 언론매체, 종교단체)과 공공부문(주민센터, 시교육청 도서관, 박물관, 학교, 정부출연기관)까지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자원을 공유하며 상호연계함²⁾
- (성과)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스스로축제 개최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도 평생학습 체제 안에 개편했으며, 2019년 기준 15,901개의 문화예술교육, 4,859개의 인문교양교육, 2,455개의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³⁾

| <100만 시민의 평생학습 공유도시>를 비전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망 구축 |

- 성남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100개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민 가까이 행복학습센터를 개소하고 성남시 평생학습과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학습망을 구성

2) 성남시(2015),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p.52.

3) 성남시(2019), 「2019년 성남시 평생학습자원 조사 연구」

하여 운영함

- 성남시 평생교육기관은 660여개로 집계되나 기관들이 서로 경쟁관계로 인식하여 기관 및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수준은 약해 연결고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적 진단결과가 있었음
-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권역간 공동사업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와 ‘스마트 러닝시티 평생교육방안’을 추진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음⁴⁾
- 성남시는 <성남비전 2020>을 통해 3대 공공성 사업을 안전, 건강,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특히 2013년 평생학습도시(주관: 교육부) 지정되면서 ‘평생학습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평생학습원 운영 조직으로 활용하며 당초 여성문화회관 등을 평생학습센터로서 기능을 조정함

| 운영 상의 주요 전략이 ‘연계’로, 공동 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홍보 및 문화예술교육자 교육이 가능한 시민문화예술 교육체계 구축이 목표

- (전략)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시설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주요 키워드이며,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구축 및 공동홍보, 사업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자 교육, 각 단위의 특성화를 고려한 프로젝트 수립이 주요 과제
- 문화기반시설 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인,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광객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을 통해 참여주체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인력 및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정보 구축이 주요 과제임
- 평생학습기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수준을 균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편향과 중복을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
- (목표) 결국 행복학습센터 100개소를 확보하고, 권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들 간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으로서(민간 문화센터 및 아카데미, 50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및 박물관) 교육예산을 통합 활용하고, 지역 기반한 교육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것이 목표임

| 시민중심 평생학습 통합기능 강화를 기치로, ‘플랫폼 통합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진행 중

4) 성남시(2020),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p.293

- 홈페이지 통합개편(2016) 및 대관시스템 도입(전시 및 학습 복합공유시설, 행복학습센터 74개)을 시작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 확장을 위한 ‘평생학습 기초조사 결과 및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을 별도의 용역을 통해 수립함(2019)
- 2022년까지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이 주요 사업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에서 추진 중임
- 2020.10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용역 완료
 - 평생학습 교육정보 통합 검색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실시간 학습 통계 추출, 교육 수요 파악, 학습이력과 수료증 발급
 - 학습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기관의 학습정보와 시민의 학습이력을 관리
 - 공공, 민간의 기관, 시민 활용가능, 민·관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총망라한 통합 플랫폼
 - 스마트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구현하도록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장 계획

| 시청 내 전담조직 구성하여, 플랫폼, 주체·프로그램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운영 기반 조성

- 성남시 평생학습 관련 전담조직은 2009년까지는 체육청소년과 산하의 평생학습팀으로 신설되었으나, 2013년 성남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014년부터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로 개편, 2019년에는 도서관사업소가 분리되어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⁵⁾
- 평생학습과 산하에는 평생교육정책팀, 평생교육연계팀, 평생학습관운영팀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 팀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생교육정책팀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평생교육연계팀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체 및 프로그램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지원’, ‘릴레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운영·개발을 관리



성남시 평생교육과(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조직도

5) 2014년 팀 단위 평생학습 지원행정을 국 단위 평생학습원으로 격상하여 평생학습도시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

[참고] 성남시민학교 통합운영 사례 (성남시청 평생교육과)



- 20년 상반기 : 총 7개 기관 9개 프로그램 통합 운영
 - 20년 하반기 : 총 8개 기관 8개 프로그램 통합 운영
 - 각 프로그램은 개별 운영기관에서 진행
 - 접수, 수강생 관리, 입학설명회, 민원 응대 등을 평생교육과 일괄 운영
 - 주무부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이며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5060신중년 성남시민학교 운영을 일괄 운영
- 인천문화재단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유사
인문, 예술로 인천시민 열린학습 플랫폼을 표방하며, 재단 내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미술관 등지 진행

|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공모형 방식을 일부 활용하여, 수요 기반의 아이디어를 발굴·반영

- 특히 평생교육연계팀의 ‘공동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지원’, ‘릴레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개발 사업은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평생교육연계팀은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진행을 점검하여 각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자율성·효율성을 확보함

|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기관·교육프로그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홍보⁶⁾

-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정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연계하여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배움숲’ 구축⁷⁾
- SNS 소통 채널을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트위터와 커뮤니티의 형태로 운영되는 페이스북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홍보와 이용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도모함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화면 구성

6) 성남시(2017).『평생학습도시 성남 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서』. p.38.

7)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https://learning.seongnam.go.kr/index.do>



2) [기초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 기획 전담 조직

| 사업부 아래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통합 연계 방향 설정

- 성북문화재단은 인천문화재단과 유사하게 재단 산하 기관이 많은 기초자치재단으로서 재단의 정체성으로서 역사문화, 생활예술, 인문학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과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책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과 지식 생태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해왔음
- 운영 중인 주요 문화예술시설 현황으로는 도서관 13곳, 전시 및 창작시설 5곳, 시네마빌딩 및 미디어 센터 각 1곳, 회관·극장·아트홀 4곳, 그 외 체험관 1곳과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 중임
- 이와 관련해 재단이 관리하는 다수의 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특화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인 '도서관사업부'라는 부서를 두고,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문화사업부' 내 각각의 개별 기관의 장르 및 업무특성에 따라 상위 기획조직을 팀 단위로 두고있음
- 성북문화재단: 1지원단, 2본부, 7팀으로 구성 (문화사업본부 54명, 도서관본부 81명, 정책지원단 29명)



| 도서관, 미술관, 건축·영화시설 등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 통합 운영·관리

- (전략) 개별 기관의 장르 및 업무특성으로 기획조직을 설치한 것과 더불어, 지역문화공간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북구는 지역파트너십 확대 및 문화예술시설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네마빌딩과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회관, 아리랑정보도서관, 해오름도서관이 거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인접하여 성북문화재단이 위치함
- (목표) 개별 문화예술 시설을 민관 협의체를 통해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시설 이용 주체 간 연계 및 적극적인 문화협력 활동을 도모하고 있음

| 지역 내 문화예술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다양한 시설 및 주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채널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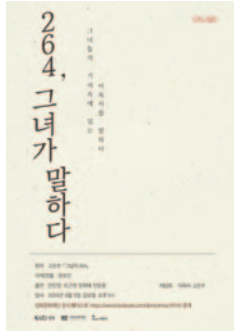
- 성북문화재단은 마을주민·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성북구와 민간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소속기관의 공동 운영을 추진하였음

- 지역문화시설: 민관 협치 방식으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
-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지역의 문화예술, 예술공간, 기획자 등이 모여, 지역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를 통한 지역 재생 실천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성북구 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부터 공유성북원탁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
- 문화사업부 내의 '지역문화팀'과 도서관사업부 내의 '도서관기획팀'은 민간네트워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직접 마을의 주체들과 컨택하면서 참여자를 섭외하면서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함

성북문화재단 사업진행 프로세스

프로세스	내용
총괄계획수립	·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도서관기획팀 총괄 기획
주체 선정	· 시기: 1월~12월(상시) · 지역문화팀/도서관기획팀 직접 컨택 · 기존 민간네트워크 참여 및 추천 · 일부 주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
세부계획수립	· 민관협의체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선정
지원	· 협의 내용에 따라 재정적 지원 제공 · 문화재단 및 성북구에 위치한 기관·시설 공간 지원
[주안점] ·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통합시행으로 사업의 구체성·실효성 확보 · 문화예술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시설·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 성북구청과 민간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 문화재단은 사업 방향의 총괄 기획 및 주체 지원·연계에 주력하여, 기관별·주체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성북문화재단 진행 프로그램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프로그램 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절차 일원화

- 성북문화재단은 홈페이지의 문화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성북문화재단 및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을 공지 및 홍보하고 있음
- 성북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접수 페이지를 운영해 도서관, 극장, 미술관, 주민회관,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함

로그인

이메일이메일 이동

강좌선택

수강신청

결제

문화프로그램 HOME > 커뮤니티 > 문화프로그램

전체 (295)

- 성북여성회관 (7)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24)
- 청강신우화극장 (4)

성북문화재단 (65)

- 성북구립미술관 (23)
- 예술마을만들기 (1)
- 청년살이발전소 (31)

아리랑시네센터 (8)

- 성북예술창작터 (13)
- 마인드 (22)
- 김종업건축문화의집 (4)

성북구민회관 (9)

- 성북구립도서관 (40)
- 지역문화팀 (44)

문화선택

제목

검색

번호	분류	제목	장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	김종업건축문화의집	[미움집예술가-강화산프로젝트] 동서굿즈전시 <Being Something>		김정현	2020-11-9	25
280	지역문화팀	김종업 상암로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이벤트! <일일강사독본> 본문 열람하기		지역문화팀	2020-11-9	25
279	성북문화재단	2020 성북축제학교 <코로나19시대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하여>		박승호	2020-11-8	93
278	성북구민회관	2020 문화포커스 10주년 기념 공연! Contact 에 초대함		정현영	2020-11-2	99
277	청년살이발전소	문화다양성 식문화 워크숍 <세계음식살롱단 요리법강좌>		관리자	2020-11-2	26
276	성북문화재단	[예술순환특] 2020 중간실험 운영 프로젝트<예술정발: 실과 실험>		지역문화팀	2020-11-1	115

성북문화재단 문화프로그램 공지 및 온라인 신청 플랫폼

|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내용 중심의 화면 구성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 통합정보제공

- 성북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시설별 분류가 아니라, 여성회관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교육,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별 카테고리 별로 분류되어 있음
- 카테고리에 내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며,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 또는 접근성 등 구민의 기호에 맞춘 기관 간 수강선택, 시리즈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임

예술교육

여성회관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교육
교육프로그램
• 우리동네 보물찾기
• 예술과 어울림
• 할바지 프로젝트
• 어린이미술관
문화교육

교육 프로그램

HOME > 예술교육 > 교육프로그램 > 우리동네 보물찾기

우리동네 보물찾기 | 예술과 어울림 | 할바지 프로젝트 | 어린이 미술관

• *우리동네 보물찾기*

‘우리동네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우리 고장과 지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 초·중·3학년 사회교과와 ‘우리지역 할바지 탐사, 고장의 모습, 고장의 자랑, 고장의 생활과 변화’ 등의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문화예술 탐방교육입니다.

• 대상

• 초·중·고 3학년 활용 워크북

• 프로그램 소개

• 초·중·고 3학년 사회교과 단원과 연계한 지역·역사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탐방 체험 교육 진행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북동 보물찾기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우리 동네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도서관 보물찾기	도서관 이용법 알아보고 워크북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부를 수렴
영화관 보물찾기	애니메이션을 관람 및 아티팩트센터의 다양한 시설 체험 (마을미디어스튜디오 아나운서 체험 + 영상실 체험)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 소개 화면 구성

3) [지자체, 재단] 수원시 :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습허브 조성

| 다양한 수요층에 부합하는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계획·운영

- 서로 다른 분야 및 장르로 분리되어 있던 교육프로그램을 융합하여 구성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



□ 운영: 2018년 4월 4일 ~ 2018년 7월 4일

- 각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슬기샘·지혜샘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융합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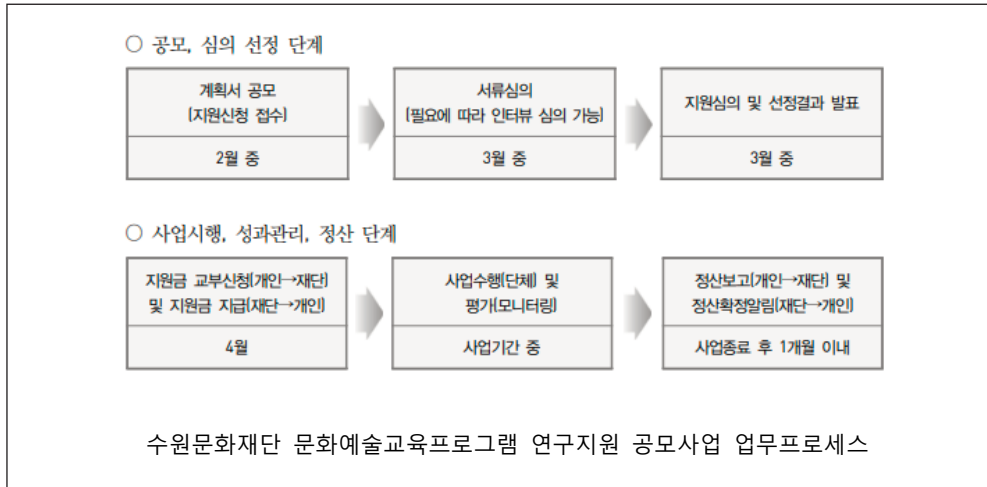
- 미술과 인문학의 통합 : '도서관에서 살아있는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요'
- 음악과 글쓰기의 통합 : '나의 노래 작곡 프로젝트'
- 국악·미술·연극의 통합 : '모두와 함께 놀자? 놀자! 강강술래'

→ 재단 소속기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 충족

|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강자의 수요 충족⁸⁾

- 수원문화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사업인 '곰곰'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예술교육강사, 기획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및 전문 교수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
- 연구 과제를 수원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만들어진 '지역연계형'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하는 통합문화예술교육 '기획형'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설정
- 수원지역 내 거점공간에서 활동이 가능한 2~4인 단체를 대상으로 2월 중에 공모하여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거쳐 3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자는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3~4백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
- 사업 결과, 대상자는 '연구결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교육 커리큘럼 제안'을 제출해야 되며, 문화재단은 이를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8) 수원문화재단(2019).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설명회 자료집』



|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의 기관 통합을 통한 학습 '허브' 조성 계획

- 수원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은 이전까지 수원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요층이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에 직면
- 이에 수원시는 기존 두 기관의 각기 다른 수요층을 흡수하는 동시에 교육 대상을 전연령층으로 확장해 그 동안 교육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의 600여개 기관에 평생학습에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 시스템을 강화하는 '허브'로 조성⁹⁾

| 홈페이지 공지 및 검색 채널을 통해 기관·교육프로그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홍보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수원시교육통합검색'을 통해 수원시 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 '수원시교육통합검색'에 접속하면 '온라인 교육접수'를 통해 현재 접수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별 교육'과 장소 및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쉬운 검색' 채널을 통해 수원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함

9) e수원뉴스. 2020.06.10.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 결정」.

- 문화재단 홈페이지는 지역 내 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를 ‘문화지도’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문화시설 및 문화인력 현황을 쉽게 확인 가능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평생학습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2015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 | 통합운영을 위해 궁극적으로 통합운영 조직체계부터 손보는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음
- 기관들의 시설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조율할 총괄조직을 두어, 참여 기관과 시설을 지원하여 기관별 연계 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성남시 평생학습원과 같이 거점 기관을 두고 하위 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하여 성남시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동일 주제의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활성화함

- 총괄조직은 주도적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종사자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 전문화 과정 또한 함께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이 과정에서 강사풀 구축 및 파견사업 등을 활용한다면 관리 효율성, 중복 및 편향을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문화예술교육사 과정 운영기관 협력)
- 특히 성북문화재단은 1지원단 2본부 체계를 통해 사업 간의 연계와 상호보완을 용이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하부서가 진행하는 사업 간 이해도와 전체 사업의 통합성을 확보함

| 수강·관리·강의제공까지 가능한 통합정보플랫폼 구축·활용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사례지들은 문화예술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검색·수강 신청·결제가 전천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학습통계가 축적되어 이용자의 학습설계는 물론, 향후 시 단위에서의 시민 수요파악에도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와 더불어 플랫폼 자체의 홍보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스마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지식”, GSEEK) 등과 연계하여 더욱 폭넓은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할 것임

| 기관 구분을 두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조성

- 소속기관 시설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조직을 함께 편성해 문화예술시설 및 참여주체들 사이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문화시설 간 통합된 프로그램을 마련함
- 특히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공공-민간네트워크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문화예술 향유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제공함
- 시민들이 기관을 이용할 때 기관 단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기관으로의 안배와 조정이 필요함

| 통합운영 조직체계 내에서 통합운영 범위나 통합운영 방법은 유동적으로 변주 가능

- 현재 사례지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은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 내 소속기관 또는 부서간 협력 형태와 프로그램 연계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음
- 장르적 유사성, 지역적 접근성, 사업(프로그램)의 성격, 조직 내 사업수행 시기 또는 절차의 유사성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준들이 잘 자리잡혀 재단 내 케이스 박스 형태로 구축된다면 유동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음 (정보습득, 프로그램 시간대, 접근성 측면에서 시민의 선택지가 다양해 질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기관간 운영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조직의 확보와 그 역량일 것이며,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고민해봐야 할 것임

| 통합운영 목적과 방향은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제고 측면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

- 기관 통합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기관 및 프로그램 참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의 제고를 꼽을 수 있음
- 특히 정보접근성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첫 단계, 진입장벽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결과와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 연령이 높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서 특히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대답
 - 통합운영의 범위별 필요성에서도 ‘정보제공’ 부분에서 통합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았음, 그 외 ‘통합 접수 및 관리 채널’,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통합 운영’이 뒤를 이었음
- 기관별 정체성 및 차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접근성은 높이되, 기관의 사업 성격에 따른 유형화와, 이것들의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 강화·옹진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대안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통합운영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활성화 방안에서의 전달체계를 고민해야 함
- 시설 간 연계를 통해 기존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이 어려웠거나, 다양하게 즐기지 못했던 시민에게 수강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비대면, 또는 강사매칭형 또는 강사순회형 수업을 해볼만함(문화배달 사업 형식)

| 시민들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선호하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 필요

-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문화예술분야 교양교육을 각 기관의 마중물 프로그램으로 유사하게 운영하되, 심화교육을 원하는 시민의 수요 또는 기호에 따라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시리즈 프로그램을 각 기관별로 배치할 수 있음

| 플랫폼 구축 시 비대면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임

-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향후 문화예술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각 문화예술기관, 지자체 및 문화재단에서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대면 프로그램에 비해 쌍방향 소통과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보고되고 있음
- 설문결과에서도 ‘기관에 찾아가 듣는 수업’에 대한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데, 젊은 연령에서는 온라인 비대면을 적극 활용할 만하고, 단순한 영상송출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고민해야 함

IV.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운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통합운영 기획 및 세부전략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조사대상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보유 명단 총 1,264명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89명, 한국근대문학관 69명, 인천역사문화센터 223명, 트라이보울 165명, 우리미술관 145명, 인천아트플랫폼 73명
조사기간	2020년 11월 2일 ~ 11월 13일 (총 12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내용	참여경험, 통합운영, 개선방안, 수강수요 등 4개 부분
유효표본	323개
신뢰도	95% (표본오차 $\pm 4.38\%$)

- 본 조사는 인천문화재단이 기획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통합운영 관련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통합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인천문화재단 소속 6개 기관(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근대문학관, 인천역사문화센터, 트라이보울, 우리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보유한 명단 1,264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12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323개의 최종 유효표본을 확보함
- 조사내용은 프로그램 참여경험, 프로그램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개선방안, 프로그램 수강수요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됨

I 조사내용 구성

구성	내용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나이, 거주지 ¹⁰⁾
참여경험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 프로그램명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정보 습득 경로
통합운영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 통합 필요성
	3개 부분 (정보통합/접수·관리 통합/교육내용 및 커리큘럼 통합)
	통합 운영이 불필요한 이유
개선방안	9개 부분 (정보, 접근성, 시간대, 참여절차, 주제, 강의실환경, 편의시설, 선정기준, 연계수강)
수강수요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
	선호하는 프로그램 참여 방법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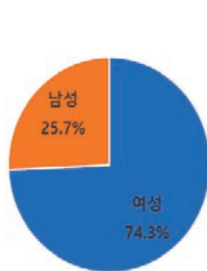
1) 응답자 일반현황

(1)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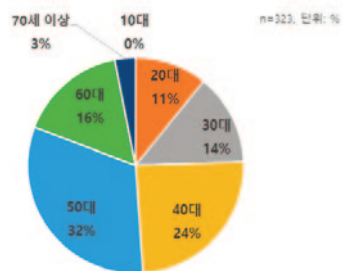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이 보유한 명단 중에서 설문조사에 답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통합운영 진행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성별·연령별·거주지별 특성을 고려하였음¹⁰⁾
- 여성 응답자(240명, 74.3%)는 남성 응답자(83명, 25.7%)의 약 3배 많으며, 연령은 40대(79명, 24.5%)와 50대(103명, 31.9%)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별 응답자는 남부(98명, 30.3%), 중부(87명, 26.9%), 동북(53명, 16.4%), 서북(37명, 11.5%), 기타(30명, 9.3%), 강화·옹진(18명, 5.6%) 순으로 나타났음¹¹⁾

10) 응답자의 거주지는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2019)의 생활권 구분에 따라 중부(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부(연수구, 남동구), 동북(부평구, 계양구), 서북(서구, 강화·옹진 생활권으로 나누었으며, 거주하는 구를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와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는 '기타'로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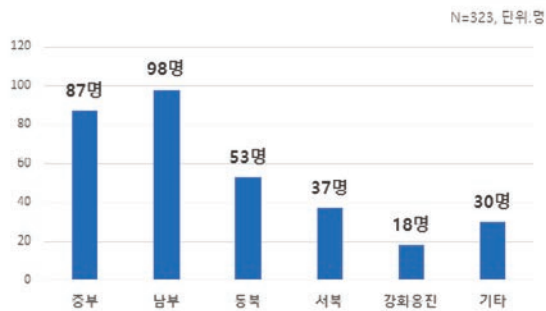
11) 응답자의 거주지 기준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15) 내 7개 생활권 계획에 준거하여 분류함
[중부생활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영종도), 남부생활권(남동구, 연수구), 동북생활권(부평구, 계양구), 서북생활권(서구), 강화·옹진생활권(강화군, 옹진군)]



◦ 응답자 성별



◦ 응답자 연령



◦ 응답자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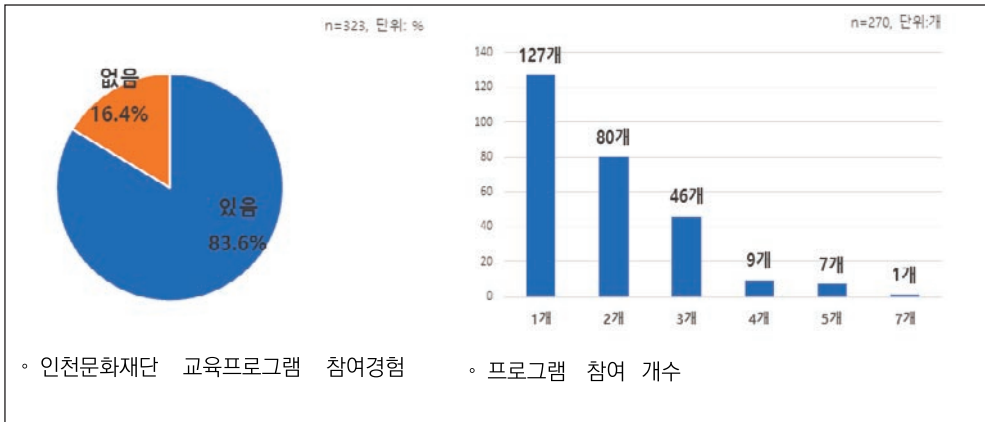
I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323	100.0%
성별	여성	240	74.3%
	남성	83	25.7%
연령	20대	35	10.8%
	30대	44	13.6%
	40대	79	24.5%
	50대	103	31.9%
	60대	52	16.1%
	70세 이상	10	3.1%
거 주 지	중부	87	26.9%
	중구	24	7.4%
	동구	24	7.4%
	미추홀구	39	12.1%
	남부	98	30.3%
	남동구	41	12.7%
	연수구	57	17.6%
	동북	53	16.4%
	부평구	28	8.7%
	계양구	25	7.7%
	서북	37	11.5%
	서구	37	11.5%
	강화·옹진	18	5.6%
	강화군	18	5.6%
	옹진군	0	0.0%
	기타	30	9.3%
	서울시	14	4.3%
	경기도	11	3.4%
	기타(지역확인 불가)	5	1.5%

2) 참여경험

(1) 인천문화재단 진행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지난 3년)

- 전체 응답자 323명 중 270명(83.6%)이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한 프로그램 개수는 1개(127명, 47.0%)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 수는 1.86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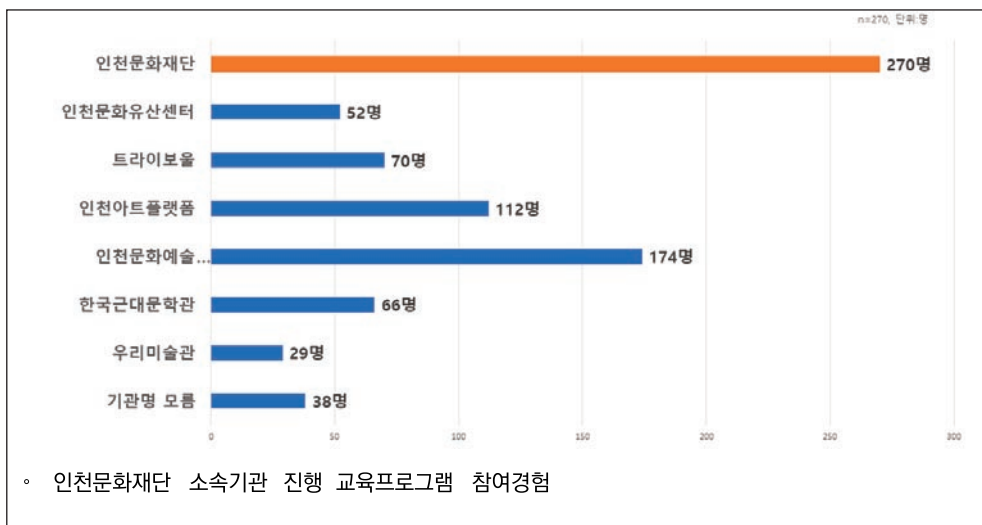


(2)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별 진행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별로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는 '인천문화예술교육센터'(174명, 64.4%), '인천아트플랫폼'(112명, 41.5%), '트라이보울'(70명, 25.9%), '한국근대문학관'(66명, 24.4%), '인천문화유산센터'(52명, 19.3%), '우리미술관'(29명, 10.7%) 순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남부생활권에 위치한 트라이보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부(38명, 43.7%)에서 높게 나타나, 기관의 접근성이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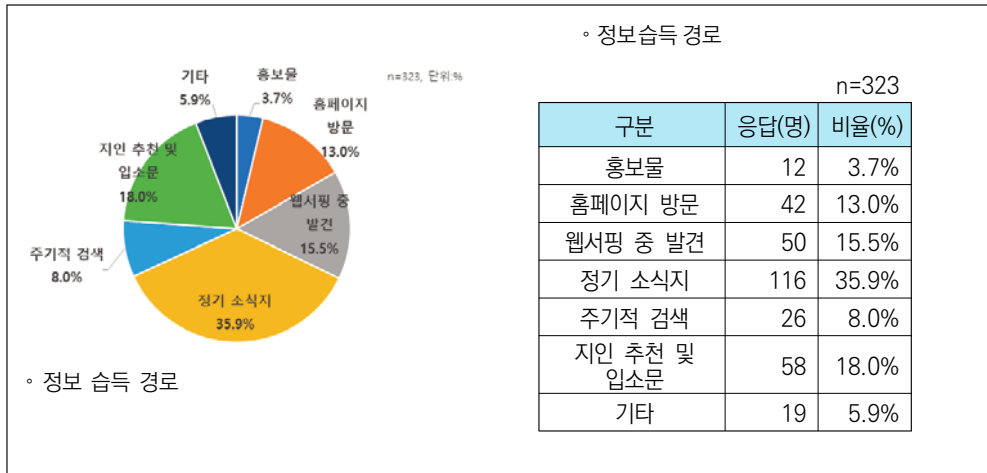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진행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구분	총계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인천문화유산센터	트라이보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예술교육센터	한국근대문학관	우리미술관	기관명 모름
전체	270	52	70	112	174	66	29	38
	100.0%	19.3%	25.9%	41.5%	64.4%	24.4%	10.7%	14.1%
거주지	중부	75	12	20	39	48	21	16
		27.8%	16.0%	26.7%	52.0%	64.0%	28.0%	21.3%
	남부	87	11	38	42	60	18	10
		32.2%	12.6%	43.7%	48.3%	69.0%	20.7%	11.5%
	동북	40	11	6	11	23	11	4
		14.8%	27.5%	15.0%	27.5%	57.5%	27.5%	10.0%
	서북	33	4	4	13	29	10	6
		12.2%	12.1%	12.1%	39.4%	87.9%	30.3%	18.2%
	강화·옹진	13	12	0	0	0	1	1
		4.8%	92.3%	0.0%	0.0%	0.0%	7.7%	7.7%
	기타	22	2	2	7	14	5	1
		8.1%	9.1%	9.1%	31.8%	63.6%	22.7%	4.5%



(3) 인천문화재단 진행 교육프로그램 정보 습득 경로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는 '관련 기관에서 발송하는 메일링 및 소식지'(116명, 35.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지인 추천 및 입소문'(58명, 18.0%), '웹서핑 중 우연히 발견'(50명, 15.5%), '홈페이지 방문'(42명, 13.0%), '주기적 검색'(26명, 8.0%), '기타'(19명, 5.9%), '홍보물'(12명, 3.7%)이 있었음



- 여성은 '홍보물'(12명, 4.6%)이, 남성은 '홈페이지 방문'(16명, 19.3%)과 '정기 소식지'(38명, 45.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에 따른 정보 습득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
- 20대의 경우 '홈페이지 방문'(31.4%), '웹서핑 중 발견'(22.9%) 등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정보 습득이 많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정기 소식지'의 비중이 높아짐
- 교육프로그램의 정보 습득을 한 경로에 대한 기타 의견에는 'SNS'라고 답한 사례가 11건에 해당해, 응답자들은 SNS를 통해서도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얻고 있음

| 정보 습득 경로

n=323

정보 습득 경로	성별		성별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체	240	83	0	35	44	79	103	52	10
	74.3%	25.7%	0.0%	10.8%	13.6%	24.5%	31.9%	16.1%	3.1%
홍보물	12	1	0	1	5	3	0	3	0
	4.6%	1.2%	0.0%	2.9%	11.4%	3.8%	0.0%	5.8%	0.0%
홈페이지 방문	26	16	0	11	4	9	9	9	0
	10.8%	19.3%	0.0%	31.4%	9.1%	11.4%	11.4%	17.3%	0.0%
웹서핑 중 발견	40	11	0	8	10	14	15	3	0
	16.3%	13.3%	0.0%	22.9%	22.7%	17.7%	14.6%	5.8%	0.0%
정기 소식지	83	38	0	4	7	22	51	25	7
	32.5%	45.8%	0.0%	11.4%	15.9%	27.8%	49.5%	48.1%	70%
주기적 검색	22	3	0	1	6	8	9	2	0
	9.6%	3.6%	0.0%	2.9%	13.6%	10.1%	8.7%	3.8%	0.0%
지인 추천 및 입소문	45	13	0	5	10	15	15	10	3
	18.8%	15.7%	0.0%	14.3%	22.7%	19.0%	14.6%	19.2%	30%
기타	10	1	0	5	2	8	4	0	0
	7.5%	1.2%	0.0%	14.3%	4.5%	10.1%	3.9%	0.0%	0.0%

3) 통합운영

(1) 교육프로그램 통합운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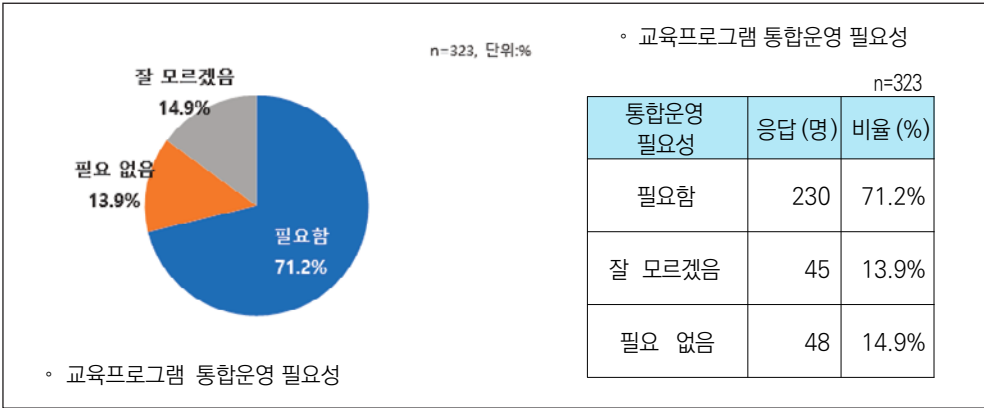
-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2%(230명)을 차지하고 있어, ‘잘 모르겠음’(48명, 14.9%)과 ‘필요 없음’(45명, 13.9%)의 응답자를 합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160명, 66.7%)보다는 남성(70명, 84.3%)이 교육프로그램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남성이 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방식인 ‘홈페이지 방문’ 및 ‘정기 소식지’가 교육프로그램 통합운영에 대한 수요로도 표출되고 있음

○ 연령별로 ‘필요함’(13명, 37.1%)과 ‘필요 없음’(12명, 34.1%)의 비율이 비슷한 20대와 다르게, 40대 이상부터는 교육프로그램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익숙치 않은 연령대에게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됨

| 교육프로그램 통합운영 필요성

n=323

구분		총계	교육프로그램 통합운영		
			필요함	필요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323	230	45	48
		100.0%	71.2%	13.9%	14.9%
성별	여성	240	160	37	43
		74.3%	66.7%	15.4%	17.9%
	남성	83	70	8	5
		25.7%	84.3%	9.6%	6.0%
연령	10대	0	0	0	0
		0.0%	0.0%	0.0%	0.0%
	20대	35	13	12	10
		10.8%	37.1%	34.3%	28.6%
	30대	44	29	7	8
		13.6%	65.9%	15.9%	18.2%
	40대	79	56	13	10
		24.5%	70.9%	16.5%	12.7%
	50대	103	87	6	10
		31.9%	84.5%	5.8%	9.7%
	60대	52	37	7	8
		16.1%	71.2%	13.5%	15.4%
	70세 이상	10	8	0	2
		3.1%	80.0%	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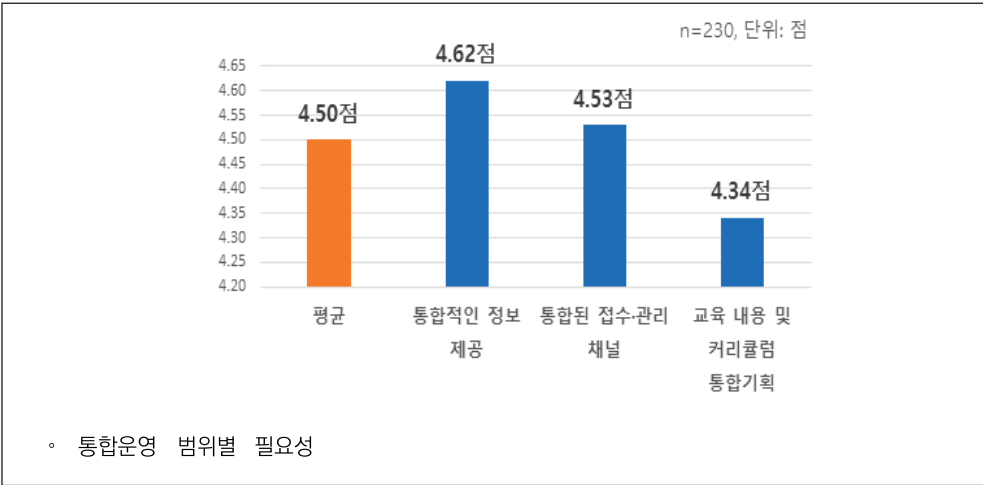
(2) 통합운영 범위별 필요성

- 통합운영에 대한 범위별 필요성을 점수화하여 비교해보기 위해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1~5점 척도의 범위별 점수를 도출하여, ‘정보통합 제공’, ‘통합 접수·관리 채널’,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부분의 통합운영 필요성을 비교함
- 범위별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한 문항의 전체 평균은 4.50점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통합적인 정보 제공’(4.62점)이 가장 높고, ‘통합된 접수·관리 채널’(4.53점),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통합기획’(4.34점)이 그 뒤를 이었음
- 응답자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수는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I 통합운영 범위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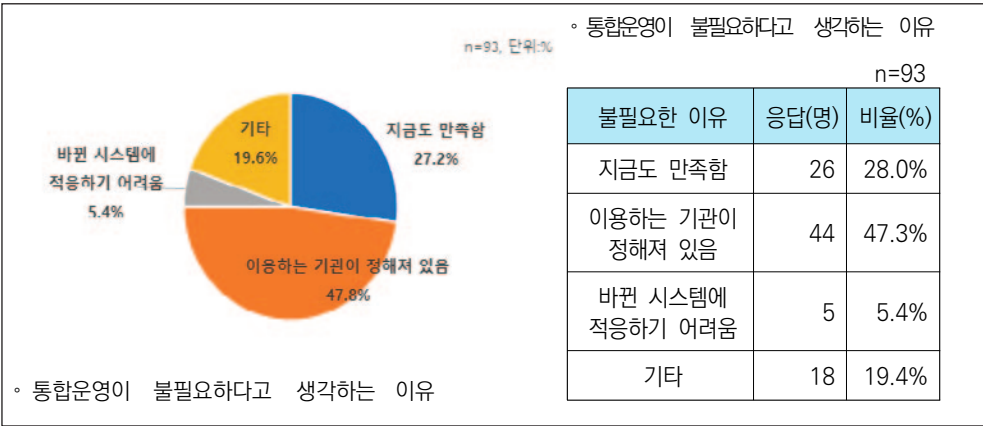
n=230

통합운영 범위	점수	필요성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평균	4.50	143.67	63.33	17.67	4.33	1
정보 통합 제공	4.62	156	63	9	2	0
		67.8%	27.4%	3.9%	0.9%	0.0%
통합 접수·관리 채널	4.53	144	66	17	3	0
		62.6%	28.7%	7.4%	1.3%	0.0%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4.34	131	61	27	8	3
		57.0%	26.5%	11.7%	3.5%	1.3%



(3) 통합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통합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는 통합운영을 해도 이용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다는 응답(44명, 47.3%)이 절반에 가까운 응답을 기록함



- 기타 의견 중 ‘기관별 정체성 및 차별성’을 위해 통합운영이 불필요하다고 11명이 응답하여, 통합운영 시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구성이 고려되어야 함

-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기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경우, 응답자의 75%(3명)가 통합운영을 해도 이용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이 필요함

I 통합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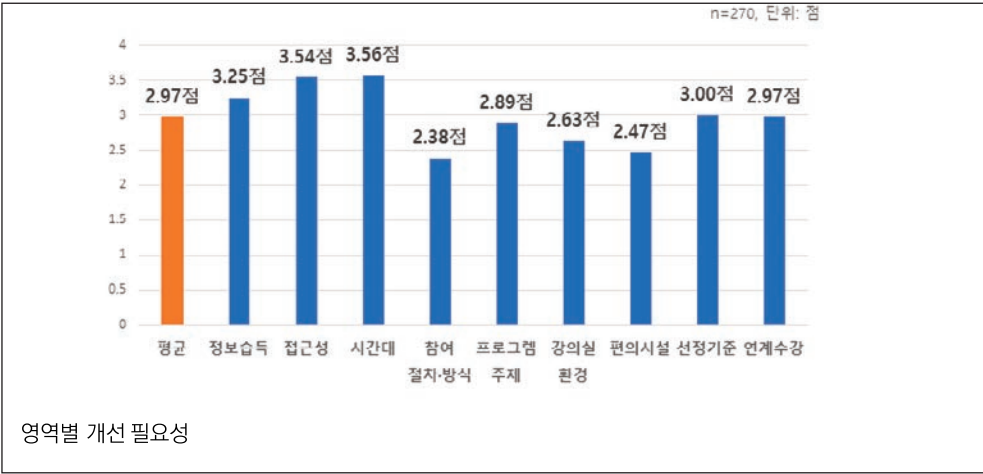
n=93

구분		총계	통합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지금도 만족	이용 기관이 정해져 있음	바뀐 시스템 적응 어려움	기타
전체		93	26	44	5	18
		100.0%	28.0%	47.3%	5.4%	19.4%
거주지	중부	26	5	11	2	8
		28.0%	19.2%	42.3%	7.7%	30.8%
	남부	25	5	14	1	5
		26.9%	20.0%	56.0%	4.0%	20.0%
	동북	17	5	7	1	4
		18.3%	29.4%	41.2%	5.9%	23.5%
	서북	12	5	6	0	1
		12.9%	41.7%	50.0%	0.0%	8.3%
	강화·옹진	4	1	3	0	0
		4.3%	25.0%	75.0%	0.0%	0.0%
	기타	9	5	3	1	0
		9.7%	55.6%	33.3%	11.1%	0.0%

4) 개선방안

(1) 영역별 개선 필요성

- 영역별 개선 필요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1~5점 척도의 범위별 점수를 도출하여, 총 9개 부분의 영역별 개선 필요성을 비교함
- ‘시간대’(3.56점), ‘접근성’(3.54점) 등은 전체 평균(2.97점)보다 높게, ‘강의실 환경’(2.63점)과 ‘편의시설’(2.47점)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영역별 개선 필요성

n=270

개선 영역	점수	개선 필요성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평균	2.97	20.89	65.22	90.89	70.44	22.56
정보습득	3.25	25	90	96	45	14
		9.3%	33.3%	35.6%	16.7%	5.2%
접근성	3.54	58	99	57	44	12
		21.5%	36.7%	21.1%	16.3%	4.4%
시간대	3.56	46	110	74	30	10
		17.0%	40.7%	27.4%	11.1%	3.7%
참여 절차·방식	2.38	5	34	68	115	48
		1.9%	12.6%	25.2%	42.6%	17.8%
프로그램 주제	2.89	12	65	92	84	17
		4.4%	24.1%	34.1%	31.1%	6.3%
강의실 환경	2.63	6	38	110	83	33
		2.2%	14.1%	40.7%	30.7%	12.2%
편의시설	2.47	7	21	103	101	38
		2.6%	7.8%	38.1%	37.4%	14.1%
선정기준	3.00	15	73	100	62	20
		5.6%	27.0%	37.0%	23.0%	7.4%
연계수강	2.97	14	57	118	70	11
		5.2%	21.1%	43.7%	25.9%	4.1%

(2) 영역별 개선방안

- 개선 필요성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영역인 ‘정보습득’, ‘접근성’, ‘시간대’, ‘선정기준’ 영역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정보습득 영역] 응답자들은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양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통합운영에 대한 수요를 보여줌
- [정보습득 영역] 정보 제공과 관련된 통합운영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속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홍보하여 수강자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드러남
- [정보습득 영역] 응답자들은 프로그램 신청창구가 기관별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신청 방식 또한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통합적인 접수·관리 채널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참여 절차·방식/선정기준 영역] 또한 신청현황 및 신청 접수·선정 결과가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답하여, 신청의 편리함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수·관리 채널이 요구됨
- [접근성/강의실 환경/선정기준 영역]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시설 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도 수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영역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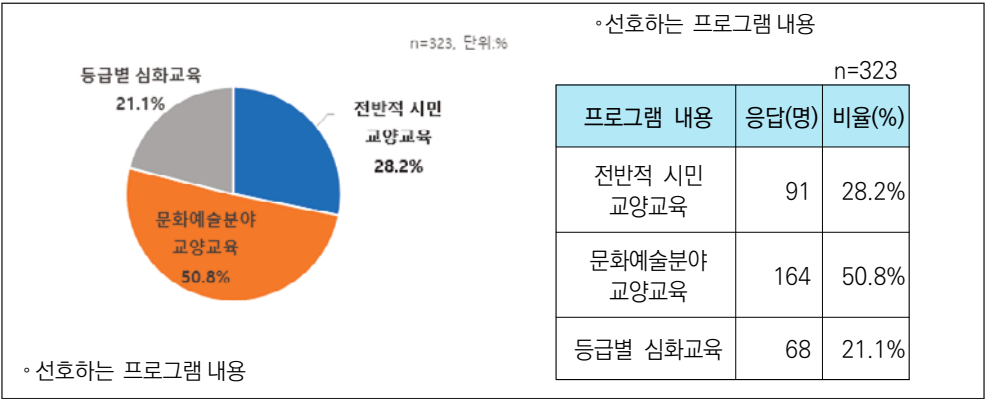
영역	개선방안		집계치*
정보 습득	홈페이지 개선	-통합된 사이트맵, 프로그램 달력,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연계	33
	적극적 홍보	-SNS, 문자, 이메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적 홍보 및 알림	28
	구체적 기획안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함께 제공	4
접근성	공간선정	-인천 지역 내에서 교육프로그램 안내, 재단 소속 기관 외 지역 내 동사무소나 도서관, 문화원 등의 공간 활용	10
	온라인 운영확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병행 및 확대	15
	교통편 확충	-대중교통 개선, 셔틀버스 운영, 주차장 확충	22

영역	개선방안		집계치*
시간대	시간대 조정	-각기 다른 수요층을 고려한 다양한 시간대 프로그램 개설	38
	온라인 운영확대	-온라인 운영 확대	7
	사전 조사	-시간대에 대한 사전조사 후 강의 개설	1
참여 절차· 방식	온오프 병행	-전화 및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운영 활성화	2
	현황공개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11
	선정방식 변경	-선착순 외에 참여도 등을 고려하는 참여자 선정 방식	2
프로 그램 주제	프로그램 다양화	-여러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장르·주제 프로그램 개설	11
	강사확충	-강사풀 확대를 통한 다양한 강의 개설	1
	프로그램 등급화	-등급별 심화교육 운영	3
강의실 환경	통신환경	-통신 환경 개선	4
	좌석배치	-좌석배치 변경	2
	장소섭외	-다른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소 섭외	2
편의 시설	화장실	-화장실 공간 확충, 여성용품 수거통 설치	3
	위생	-사용 전 시설 점검 및 철저한 위생 관리	3
선정 기준	선정방식 변경	-대기명단제, 선착순 외 선정방식 추가	5
	현황공개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4
	추가개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동일 강좌 추가 개설	3
연계 수강	정보제공	-연간 프로그램 일정 및 연계 프로그램 여부 공개	4
	수강우대	-연계 수강자에게 신청의 우선권 부여	5
*키워드로 집계하여 중복 값이 있음			

5) 수강수요

(1)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

-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문화예술 분야 교양교육’(164명, 50.8%)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답하였으며, ‘전반적 시민 교양교육’(91명, 28.2%)과 ‘등급별 심화교육’(68명, 21.1%)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응답 현황은 응답자들이 수준별로 등급화된 심화학습보다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선호하며, 특히 문화예술분야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2) 선호하는 프로그램 참여방법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기관에 찾아가 듣는 수업’(154명, 47.7%), ‘순회형 수업’(107명, 33.1%), ‘온라인 수업’(62명, 19.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다르게, 20대는 ‘온라인 수업’(17명, 48.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젊은 연령일수록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
-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기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화군의 경우 강사가 직접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형 수업’(12명, 66.7%)을 가장 선호하는 수업 참여방법으로 답해,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의 접근성이 선호하는 수업 참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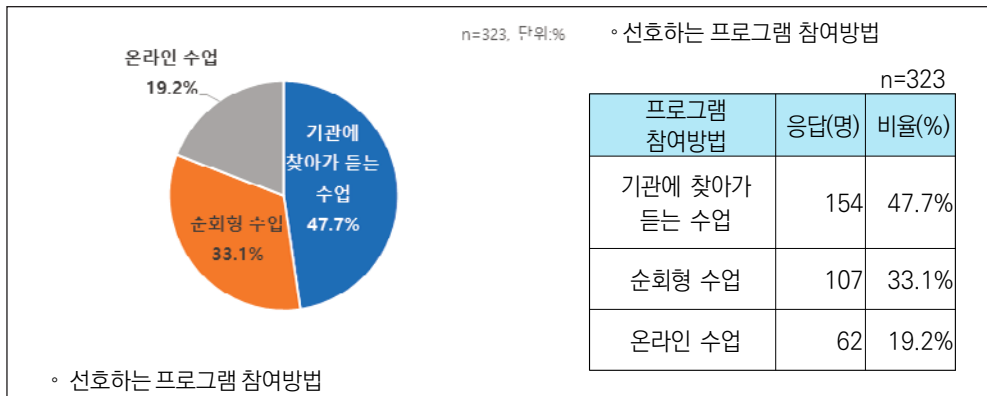
| 선호하는 프로그램 참여방법

n=323

구분		총계	프로그램 참여방법		
			기관에 찾아가 듣는 수업	순회형 수업	온라인 수업
전체		323	154	107	62
		100.0%	47.7%	33.1%	19.2%
연령	10대	0	0	0	0
		0.0%	0.0%	0.0%	0.0%
	20대	35	13	5	17
		10.8%	37.1%	14.3%	48.6%
	30대	44	23	11	10
		13.6%	52.3%	25.0%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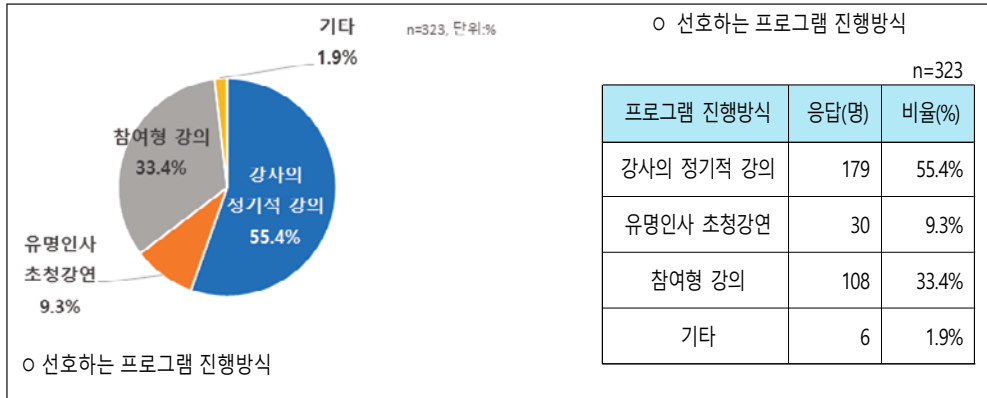
n=323

구분		총계	프로그램 참여방법		
			기관에 찾아가 듣는 수업	순회형 수업	온라인 수업
연령	40대	79	40	28	11
		24.5%	50.6%	35.4%	13.9%
	50대	103	53	39	11
		31.9%	51.5%	37.9%	10.7%
	60대	52	19	22	11
		16.1%	36.5%	42.3%	21.2%
	70세 이상	10	6	2	2
		3.1%	60.0%	20.0%	20.0%
거주지	중부	87	47	30	10
		26.9%	54.0%	34.5%	11.5%
	남부	98	51	26	21
		30.3%	52.0%	26.5%	21.4%
	동북	53	18	24	11
		16.4%	34.0%	45.3%	20.8%
	서북	37	20	12	5
		11.5%	54.1%	32.4%	13.5%
	강화·옹진	18	5	12	1
		5.6%	27.8%	66.7%	5.6%
	기타	30	13	3	14
		9.3%	43.3%	10.0%	46.7%



(3)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

-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강사가 진행하는 정기적 강의’(179명, 55.4%), ‘참여형 강의’(108명, 33.4%), ‘유명인사 초청강연’(30명, 9.3%), ‘기타’(5명, 1.9%)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남
- 응답 결과는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방식의 일회성 강의보다는 지속적·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줌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정보 통합 제공 필요

-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범위별로는 ‘정보 통합 제공’(4.62점)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에서도 ‘정보습득’(3.25점)의 문제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홈페이지 개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표출되었음

| 통합된 접수·관리 채널을 위한 플랫폼 마련 필요

- 응답자들은 ‘통합 접수 및 관리 채널’(4.53점) 영역에서 각 영역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보여줌
-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이 없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신청 현황도 공개가 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는 응답자들의 불만이 제기됨

- 교육프로그램 공지부터 참여 신청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 운영 필요

-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트라이보울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모두 중부생활권에 위치해, 중부생활권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거주민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영역별 개선 필요성 항목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3.54점을 기록해,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영역임
- 이러한 필요성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도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표출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 소속기관 간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인천문화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V. 교육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

- 본 연구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인천문화재단이 직접 주관하되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독립적이고도 개별적인 성격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앞의 설문 조사 결과나 현황, 타 기관 사례 등을 검토하여 여기에서는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1. 부서간 협력시스템의 구축

| 부서별 자율적 기획 및 운영 시스템은 유지

- 인천문화재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현 단계에서 당장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임. 즉, 부서별 필요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해나가고 개별 프로그램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부서별 자율성과 기획력, 특성 등을 존중하여 프로그램이 다양한 주제,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되어 운영되는 것은 기존의 장점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임. 아울러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함.

| 부서별 협력과 조정 시스템 도입

- 그러나 인천문화재단 기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중복적 프로그램 기획의 지양, 정보의 교류와 공동 홍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관리, 기타 부서별 협력 가능한 사업 기획 등의 필요성은 있음.
- 즉, 부서 개별적 프로그램 운영은 성과도 있고 부서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므로 존중하되 부서간 협력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임. 따라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모색해야 함.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협력회의 설치

- 부서간 협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가칭)‘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를 재단 내부에 둘 것을 제안함.
- 협력회의의 운영 책임은 이후 서술할 교육프로그램 관리 부서에서 맡음.
- 협력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과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시스템 담당자, 마지막으로 관리부서의 장과 담당자로 함. 회의는 필요시 부서의 장과 담당자 중 대표자 한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음.

-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①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정보 공유, 정보 집적 및 기획과 운영 협력 사항, ②유사 및 중복 교육프로그램 조정, ③교육프로그램 공동 홍보 사항, ④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관련 운영 협력 사항, ⑤수강생 공동 관리 사항, ⑥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임.
- 회의는 최소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을 의무로 하되 개최시기는 개별 부서에서 교육프로그램 세부추진 계획 수립 이전인 1분기와 사업을 마무리하는 4분기 중 개최하고 이외에 회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소집할 수 있음.
- 본 교육협력회의는 통제와 조정, 관리보다는 상호 협력과 상호 발전, 내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둬.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리 부서 지정 및 재단 내부 공유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연계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각기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종합 관리할 부서를 지정, 담당 분장 사무화하여야 함. 그렇게 해야 문화재단의 공식 업무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
- 단, 본 업무를 새로운 분장사무로 도입하기 위해서 재단 내부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간부회의 등에서 관련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설명하는 등 공유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함. 아울러 (가칭)‘문화예술교육협력회의 운영 규칙’ 등을 제정하여 업무가 제도 내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리부서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관리’라는 사업을 신설하여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함.
-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관리’사업 내용으로는 교육협력회의 개최,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서별 담당자 교육, 세부추진계획이나 최종 보고 시 협조, 홍보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통합 관리 방안 마련 등이 들어가야 함. 이 외에 장기적으로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음.
- 다만 신규 사업이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것인지, 관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관리를 받는 직원들에게 관리의 명분과 체계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는 실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이런 사업을 통해 인천문화재단이 교육프로

그럼 전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사업 성과 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해 보임. 이를 위해 우선 2021년 시범 사업으로 사업 관리를 진행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당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2021년 교육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 중 한 곳으로 하거나 관리 관련 업무 부서 중 한 곳으로 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교육프로그램 운영부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엄밀히 말해 이해당사자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비해 관리 부서 중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은 제3자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교육프로그램 담당 부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업 부서에 비해 실제 현장 파악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음.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나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단 내부의 공유 과정이 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 중에서 관리 부서를 지정할 경우 교육 전담 기능을 갖고 있는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타당해 보임. 그러나 당장 업무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부서간 프로그램 조정이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센터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임. 중장기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비전으로 실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2021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단 본부 부서나 대표 이사 직속 기구 등의 관리 담당 부서에서 교육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교육센터로 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2.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연계 활성화 전략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아이큐앵(인천문화예술공연정보)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높여 홍보 및 시민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련 메뉴 신설 운영

- 현재 운영중인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의 메뉴 조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전담 메뉴를 상단에 노출하여 활용함.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별 홈페이지에 각각 따로 홍보하는 것이 주였고 재단홈페이지에는 상단 메뉴가 아니라 하단 메뉴로 일반 시민에게 노출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 이를 최상위 메뉴로 설정하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민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열린문화/참여신청 메뉴를 개편하여 부서별 교육프로그램을 이곳에 공지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음. 하나의 메뉴에 부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모아 놓음으로써 홍보 기능을 제고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음.
- 이를 위해 홈페이지 기능 개편 및 메뉴 구성 정비 등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 자료 탑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것은 오프라인 관리와는 별개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가 교육협력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됨.

IIQ앱을 활용한 연계 전략

- 최근 스마트 기기 이용은 PC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추세임. 상시적으로 휴대할 수 있고 언제나 접근이 편리하므로 스마트폰에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통합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대안은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어야 함.
- 전체적으로 IQ는 교육프로그램 관련 메뉴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행사 메뉴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분야별 행사의 분류 체계는 무용/뮤지컬과 오페라/연극/음악과 콘서트/전통예술/토크콘서트/스포츠레저/교육과 체험/문학과 인문학/아동극과 인형극/영화/전시/축제와 문화행사/포럼과 세미나/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분류를 개편하여 교육 메뉴를 보완하자는 것임. 아울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안에서도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관심 있는 영역을 찾아가도록 해야 함. 예컨대 문화교양/예술감상/예술실기 등의 하위 메뉴 구성 등이 필요하며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전담 메뉴 구성 가능성 역시 검토해 보아야 함.
-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재 IQ 앱에서 분야별 행사에 인천문화재단 교육프로그램 메뉴가 신설되고 해당 메뉴 하단에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IQ앱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수강 신청, 또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이 영역은 중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IQ고도화 사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인천문화통신〉, 재단홈페이지와 IQ앱 등을 활용한 홍보 활성화

- 참가자들이 재단 교육프로그램을 인지하는 경로는 정기 소식지가 36%, 지인 추천 및 입소문이 18%, 웹서핑중 우연히 발견이 15.5%, 홈페이지 방문이 13%임.
-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앞으로 반드시 사업 시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 문서 작성과 결과 보고 문서에 해당 부서 홈페이지 게시 여부, 재단 홈페이지 게시 여부, IQ앱 게시 여부, 인천문화통신 게시 여부, 페이스북 북 등 기타 인천문화재단 온라인 홍보 도구 게시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관련 양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인천광역시 소식지 굿모닝 인천, 각 구정 홍보지와 연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함. 굿모닝 인천은 필요할 경우 별도 협약을 맺어 인천문화재단 코너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함.

3. 향후 과제

- 이 보고서는 실무적 활용을 위해 준비된 정책 보고서로 본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는 아님. 향후 과제를 남김으로써 이후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함.
- 교육프로그램은 지원기관으로써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임. 인천문화재단이 시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나 방향 설정 등은 매우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방향과 이념으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여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재단 내부의 토론과 공유가 필요함. 이를 위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사례 조사와 이용자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바탕으로 비전과 미션, 전략 등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와 관련하여 제안할 점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민대상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장기적으로 ‘인천시민문화대학’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비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즉, 인천문화재단이 자신의 고유 역할 중 하나를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설정한다고 할 때 하나의 축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면 다른 하나는 ‘인천시민문화대학’으로 설정하여 보다 목적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화된 전망, 실행 제도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재단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하늬바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하늬바람’을 인천문화재단의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하나의 별도

브랜드로 집중하여 육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과 의사 결정이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현재처럼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온라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대책이 있어야 함. 이 보고서에서는 일단 현재 시스템 안에서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 정도를 제안하는 데에 그쳤다면,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온라인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프로그램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함.

인천문화재단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계활성화 방안

저 자 이현식

발행인 최병국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인천문화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인 쇄 미소기획

이 보고서는 2020년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에서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물로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재단관련자료/연구자료에서 PDF파일로 자유롭게 다운받아 열람할 수 있다.